



##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 법어



오늘,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과 선량부모 조상 영식전도불공을 회향하면서 호국 안민 기원 대법회를 원만히 봉행하게 된 것은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 보살님들의 용맹정진과 선업 공덕의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총지종은 창종 이래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체 중생의

복락을 위하여 불공을 으뜸으로 여겨 왔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모든 중생들이 함께 해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개인의 해탈에 앞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불공을 우선시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호국안민기원대법회도 그러한 의미를 담은 법회로서 그동안의 불공공덕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하는 법회입니다.

그 동안 법회는 살아 있는 생물을 방생하는 것을 주로 삼았다면 오늘의 법회를 통하여 고통의 굴레에 묶여있는 모든 불쌍한 중생들의 자유로운 삶을 기원하며 그들을 삶의 질곡에서 방생시켜주는 인간 방생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웃의 소외되고 억압받는 중생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간 방생

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지켜나가고자 하는 불자가 수행해야 할 참 진리의 길인 것입니다. 나누고 비우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의 삶이요,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삶의 자세요, 부처님 법에 따르는 대승보살도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사회는 인연의 굴레에 함께 묶여 있는 공업(共業)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며 나의 무명과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애정의 시선을 보내고, 작은 일이나 그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가슴 깊이 인간 방생의 참다운 의미를 깨우치고, 나아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마음을 자세를 다지며, 불자로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오늘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 보살님께 비로자나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서원하며,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사원과 가정마다 일체의 소원이 두루두루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옴마니반메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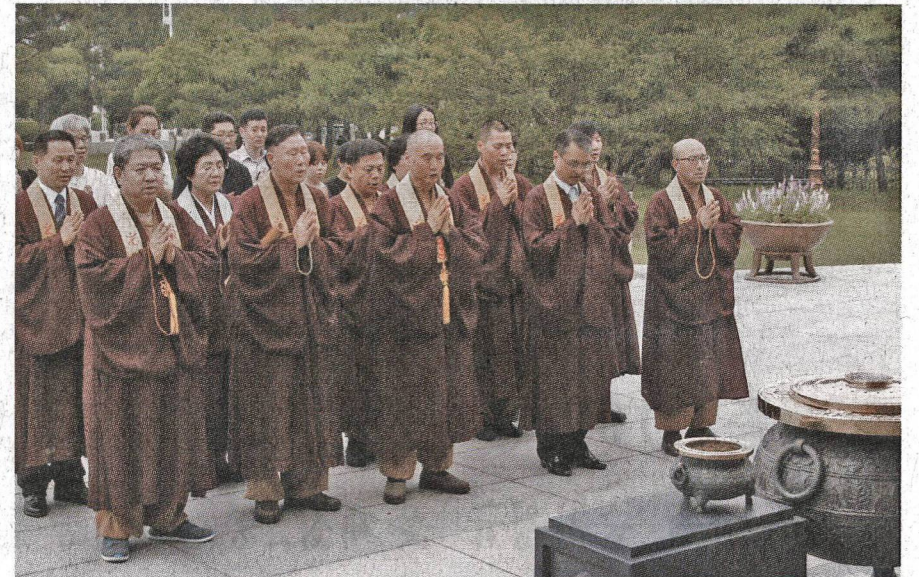
총기 42년 7월 16일

불교총지종 종령 호 강 합창

## 호국보훈의 달, 국립현충원 참배

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스승 및 종무원 일동 참배



▲ 6.25동란 희생자 및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불사(국립현충원)

불교총지종 서울 경인교구(교구장 범우 정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 오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법등 총리원장, 인선 총무부장, 우인 재무부장, 원당 교정부장 등 총리원 집행부와 범우 서울, 경인교구장을 비롯한 스승 및 종무원 30여명이 참배에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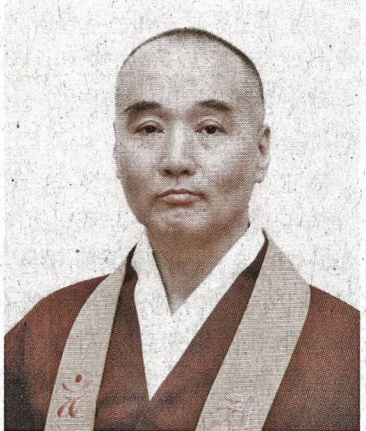
참배단을 대표해 법등 총리원장은 국립현충원 충혼탑 호국 영령 위패 전에 훈장정공하고 헌화하였다. 이어 총지종 전통 의례를 따라 추모 불공을 올렸다. "호국 영령 및 6.25 동란 희생자 극락왕생성불"로 서원 사항을 염송하고 종단의 49일 진호국가불사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안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불공을 마친 후 참배단은 국립현충원 관리직원의 안내로 충혼탑 내부의 무명용사탑과 위패 단을 참배했다. 63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전쟁의 상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다.

총리원장 범우 정사는 "총지종의 전통의례이자 불공법인 하반기 진호국가불사 중에 6.25 동란 기념일을 맞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뜻 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라며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비로자나 부처님 전 서원했다.

국립현충원=김종열 기자

##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총리원장 인사말



지난 49일 동안 나라를 위한 호국일념과 조상들의 영령을 추복하고 유언, 무연중생의 영식전도를 위하여 용맹정진하시고 이제 원만히 회향하신 여러분들의 공덕이 오늘의 법회로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계율은 청정한 삶을 유지하여 마침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방편입니다. 그 가운데 살생을 금지한

불살생계는 가장 중시되는 계율이며, 방생은 불살생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나가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 경전에는 "항상 방생을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짐승을 죽이는 것을 보았을 때는 마땅히 방편을 써서 죽게 된 짐승을 살려주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자들은 방생 본래의 의미를 되새겨 자기만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중생구제라는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생명도 소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방생은 이러한 자각 즉, 연기적 세계관에 대한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나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우주 만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와 한 몸인 모든 존재에 대한 존귀함과 불해(不善)를 말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불살생과 자비의 구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체대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방생(放生)'은 곧 '공생(共生)'이며 '상생(相生)'으로 이어지게 하는 부처님의 커다란 자비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가슴에 희망을 싹트게 해주고, 세상은 살만한 것이라고 일깨워 주고, 더불어 웃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방생'이고, 이것이 바로 '공생'과 '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생'과 '상생'은 지역 이기주의, 진보와 보수, 계층간 양극화, 세대간 갈등, 등 작금의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커다란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방생'이라는 자기 방생을 통하여 아집과 아상, 편견과 사된 욕심을 버림으로써 스스로를 해탈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법회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해탈을 위한 법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생의 상징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방생의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호국가불공 회향을 위한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각 사원 스승님들과 보살님, 각자님들의 정진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들의 일체 소원이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총기 42년 7월 16일

총리원장 범 등 합창

##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뼈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흥포(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아타행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금번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 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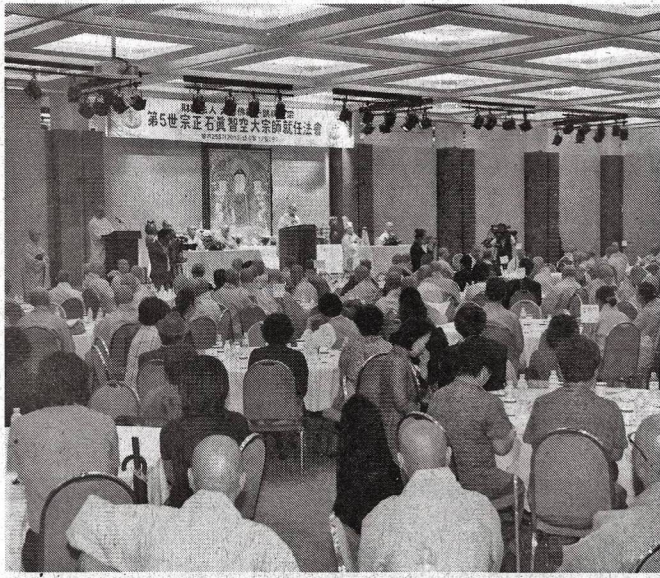
일시 총기 42년 7월 16일 (화)

장소 각 교구별로 시행

불교총지종



## (재)일불선교종 종정 지공 대종사 취임 -종도를 중심으로 화합과 대통합을 이루자



▲ (재)일불선교종 제5세 종정 지공 대종사 취임 법회

(재)일불선교종은 6월 12일 효창동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 센터에서 제5세 종정 지공 대종사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총지중보 총리원장 법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기로스승

우승 정사, 원승 정사 및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및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내외 귀빈 500여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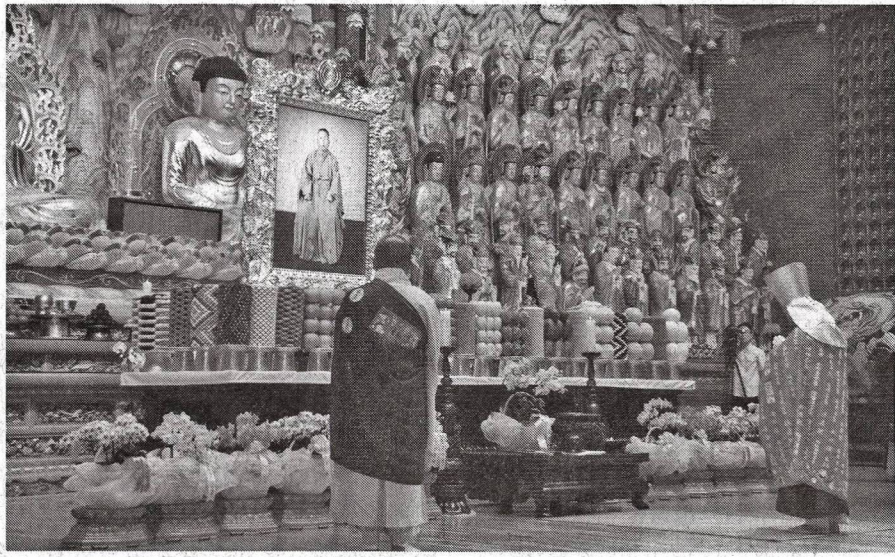
일불선교종 교육원장 및 삼장의전단의 패불이운에 이어 호불사 신도회의 육법공양이 있었다.

봉행위원장인 일불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본 종단의 중심이 되시는 5세 종정 예하 석진 지공 대종사와 함께 일불 전종도의 화합과 남북 평화 통일을 바라는 여법한 법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며 종정 스님을 중심으로 종도 화합을 다짐했다.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은 “오늘 취임하시는 지공 종정 스님을 중심으로 일불선교종이 가장 내실 있는 종단으로 한국 불교의 중심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며 종정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새로이 취임하는 일불선교종 종정 지공 대정사는 취임법어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한국불교의 주역으로 부처님의 평화사상과 우리의 스승이신 일불 존자님의 유훈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입니다.”며 전 종도들과 함께 평화사상 실천에 앞장 설 것을 종도들에게 당부했다. 백범기념관= 김중열 기자

## 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제39주기 열반대제 봉행 단양 구인사 사부대중 2만여명 동참



▲ 상월원각대조사 영전에 헌공하는 도용 천태종 종정 스님

천태종 종창조 상월원각대조사의 제 39주기 열반대제가 6월 5일 오전 10시 30분 단양 구인사 광명전 5층 법당에서 봉행했다.

열반대제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 스님, 원로원장 운덕 스님, 총무원장 도정 스님, 종의회의장 문덕 스님, 감사원장 준광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김학송

천태종 참의원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국회의원 등 정계인사, 지자체 관계자 등 2만 여명의 동참했다.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의 사회로 봉행된 열반대제에서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조사님은 국운을 상실한 시대에 태어나 각고의 고난을 겪었지만, 끊임없는 정진으로 원각의 묘처

를 얻어 영원한 진리의 등불을 밝히셨다”며 “천태종은 국운의 융성과 종지의 유통을 위해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으니, 향후 대조사님의 가르침과 불조의 해명을 받들어 인류 만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정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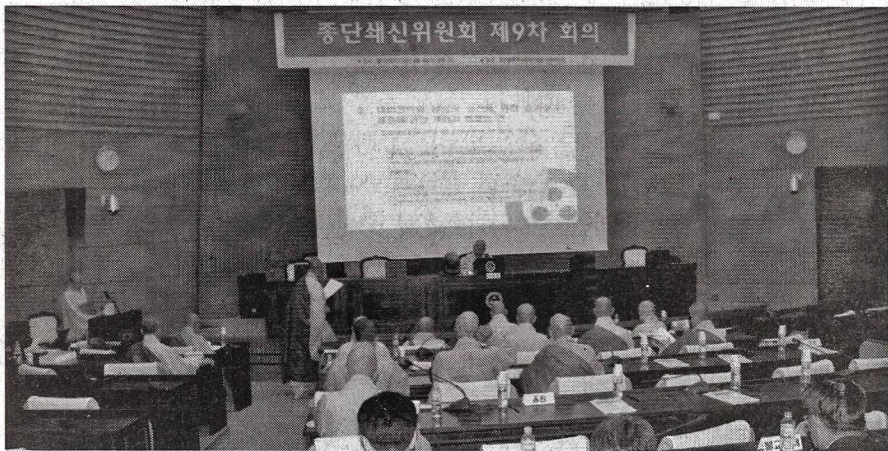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자승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장 법광 스님이 대독한 추도사에서 “나만의 행복과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데서 벗어나 생활속에서 불법을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불자들의 실천을 강조했다.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은 “조사님이 1945년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모든 사부대중이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애국불교·생활불교·대중불교의 3대 지표를 제시해 주셨다. 불교계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다”고 서원했다.

이날 열반대제가 끝난 뒤 사부대중들은 구인사 뒤편 수리봉 적멸굴에서 적멸공제를 봉행했다.

단양 구인사=김중열 기자

## 조계종, "10년이하 자동차소유금지, 도박등 강력 제재" 승려의 규범 '승가청규' 첫 제정..종정교시등 절차거쳐 공식 발표키로



▲ 조계종 재구차 종단쇄신 위원회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 스님)는 4일 서울 견지동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승려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특히 조계종 소속 스님들은 앞으로 승랍(僧臘·승려가 된 햇수) 10년 미만은 공용차를 사용하고, 10년 이상의 말사주지·국장은 배기량 1500cc 이하를,

20년 이상 부장은 2000cc급 이하를 쓸 수 있도록 했다.

25년 이상인 본사주지나 원장만이 3000cc 이하급 대형차를 탈 수 있다.

승가청규는 자성과 쇄신결사의 5대 가지인 수행과 생명, 평화와 나눔, 문화를 주요 범주로 설정해 종단이 대승불교와 한국불교, 현대불교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실천지침으로

구성됐다. 주요 골자는 △행복한 공동체 정신의 회복 △참회와 수행을 통한 자정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구현이 기본 방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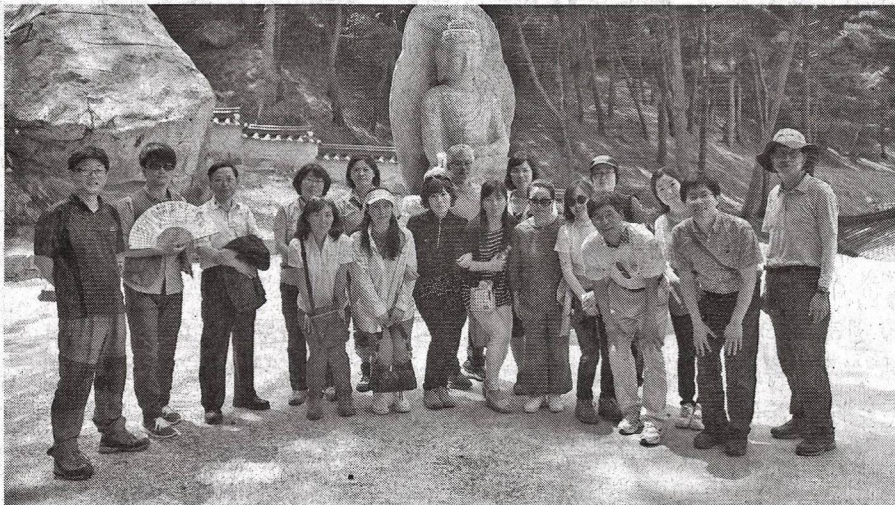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을 의결했는데 이 청규(淸規·정정한 규칙)는 선원청규, 총림청규 등 특정 분야의 청규가 아닌 종단의 전 승려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편적 청규다.

조계종은 승가청규를 의결하면서 "도박, 유흥주점 출입·음주 등 같은 막행막식 행위는 중벌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 내용을 별도 안으로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종단쇄신위는 "종단 출범 반세기를 맞아 현대사회 승가의 현실에 맞게 모든 승가 대중이 공통으로 지켜야 할 규범으로 승가청규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총무원회의 의결, 종정스님 보고 및 교시 등 절차를 거쳐 청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종립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경주 남산 순례



▲ 경주남산 불적순례를 다녀온 동해중학교 불교어머니회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장재계) 김수미(3-3)는 6월 15일 경주 남산 불교유적 불교어머니회(회장 박진숙, 총무 순례를 다녀왔다. 어머니회 회장

박진숙(3-2 김태관 모), 총무 김수미(3-3 황태정 모) 및 회원 30여 명과 탁상달 교감, 하봉걸 수석교사, 법선 정교 등이 동참했다.

이날 불교유적 순례는 칠불암, 신선암, 보리사 등 천 년을 넘게 이어온 불교 유적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와 신라인의 원력을 확인했다.

불교어머니회 박진숙 회장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유적을 찾아 떠나는 순례길을 통해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진리가 충만한 세상에 살기를 서원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지 순례를 통해 상호 간의 우애를 다지고 학교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라며 순례의 소감을 전했다.

동해중 = 수석교사 하봉걸

총지중보를 이웃과 함께 합시다.

구독신청 \_ 불교총지중보 통리원 전화 \_ 02)552-1080 E-mail \_ jukah@paran.com

불교 총지중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합니다

7월 중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www.chongji.or.kr

##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       |     |      |        |
|-------|-----|------|--------|
| 개천사   | 이희권 | 5/30 | 10,000 |
| 개천사   | 강순시 | 6/12 | 10,000 |
| 개천사   | 무명씨 | 6/12 | 30,000 |
| 개천사   | 이희권 | 6/24 | 10,000 |
| 관성사   | 황성녀 | 5/28 | 10,000 |
| 관성사   | 인선  | 6/24 | 20,000 |
| 기로대관  |     | 6/24 | 10,000 |
| 기로대자행 |     | 6/24 | 10,000 |
| 기로밀공정 |     | 6/24 | 10,000 |
| 기로법수원 |     | 6/24 | 10,000 |
| 기로법장화 |     | 6/24 | 10,000 |
| 기로법지원 |     | 6/24 | 10,000 |
| 기로불멸심 |     | 6/24 | 10,000 |
| 기로사홍화 |     | 6/24 | 10,000 |
| 기로상지화 |     | 6/24 | 10,000 |
| 기로수증원 |     | 6/24 | 10,000 |
| 기로총지화 |     | 6/24 | 10,000 |
| 단음사   | 법연지 | 6/12 | 10,000 |
| 덕화사   | 하순옥 | 6/18 | 5,000  |
| 밀인사   | 정정희 | 5/29 | 5,000  |

|        |       |      |         |
|--------|-------|------|---------|
| 벽룡사    | 무명씨   | 6/4  | 10,000  |
| 벽룡사    | 무명씨   | 6/4  | 10,000  |
| 벽룡사    | 양정현   | 6/21 | 10,000  |
| 벽룡사    | 양지현   | 6/21 | 10,000  |
| 삼밀사    | 하명순   | 6/12 | 10,000  |
| 삼밀사    | 오혜민   | 6/12 | 10,000  |
| 삼밀사    | 서명    | 6/12 | 10,000  |
| 성화사    | 우담바라회 | 6/17 | 40,000  |
| 수인사    | 김봉기   | 5/28 | 10,000  |
| 승천사    | 원봉    | 6/13 | 10,000  |
| 승천사    | 지선행   | 6/13 | 10,000  |
| 시법사    | 선도원   | 6/24 | 10,000  |
| 실보사    | 조순애   | 5/27 | 70,000  |
| 실보사    | 조순애   | 6/25 | 70,000  |
| 실지사    | 월명심   | 5/28 | 10,000  |
| 실지사    | 이순명   | 6/14 | 30,000  |
| 실지사    | 박병성   | 6/20 | 100,000 |
| 우리사랑나눔 |       |      |         |
|        | 손경옥   | 6/15 | 4,756   |
| 일원어린이집 |       |      |         |

|        |       |      |        |
|--------|-------|------|--------|
|        | 이 준 동 | 5/27 | 10,000 |
| 일원어린이집 |       |      |        |
|        | 김 지 연 | 5/27 | 10,000 |
| 일원어린이집 |       |      |        |
|        | 하 재 희 | 5/27 | 30,000 |
| 일원어린이집 |       |      |        |
|        | 이 준 동 | 6/25 | 10,000 |
| 일원어린이집 |       |      |        |
|        | 김 지 연 | 6/25 | 10,000 |
| 정 각 사  | 박 후 휘 | 6/19 | 10,000 |
| 정 각 사  | 구 정 희 | 6/19 | 20,000 |
| 지 인 사  | 승 효 제 | 6/13 | 10,000 |
| 지 인 사  | 지 성   | 6/13 | 10,000 |
| 지 인 사  | 허 성 동 | 6/25 | 30,000 |
| 총 지 사  | 법 등   | 6/4  | 30,000 |
| 통 리 원  | 김 지 영 | 6/4  | 5,000  |
| 화 음 사  | 강 순 란 | 6/3  | 5,000  |
| 흥 국 사  | 지 정   | 6/13 | 20,000 |
|        | 서 선 숙 | 5/27 | 10,000 |
|        | 무 명 씨 | 6/11 | 10,000 |

|     |      |        |
|-----|------|--------|
| 김갑선 | 6/19 | 10,000 |
| 최영례 | 6/20 | 10,000 |

### 5월26일부터 6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판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송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7668610  
- 우리은행: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 법등 통리원장 천태중 예방

서울 관문사에서 천태중 장도정 통리원장과 환담



▲ 천태종 총무원장 장도정 스님과 환담중인 통리원장 법등정사

법등 통리원장과 인선 총무부장은 6월 10일 천태종 총무원장 장도정 스님과 서울 관문사에서 만나 불교계 현안과 관심사에 대해 환담을 나누었다.

부처님께 기원합니다.”라며 법등 통리원장의 취임과 앞날을 축원했다.

법등 통리원장은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뜻을 받들어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일구어낸 천태종 사부대중의 원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 법음을 흥포하시는데 가장 앞서 가는 종단이 되기를 서원합니다.”라며 천태종의 단합된 힘으로 한국불교의 선두에 서주실 것을 당부했다.

정통 밀교 총지종과 천태종은 앞으로 서로의 종단 발전과 불교계 현안에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국불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로 했다.

천태종 서울 관문사=김종열 기자

## 새누리당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구)

신임 통리원장 취임 축하 인사차 예방



▲ 통리원장 집무실에서 환담중인 이진복 새누리당 국회의원

국회 지식경제위 새누리당 이진복 국회의원이 6월 13일 총지종 통리원을 방문했다. 이진복의원은 법등 통리원장과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라며 축하인사를 했다.

법등 통리원장은 “바쁜 국회 일정 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지종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기를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라며 이진복 의원의 국회의정 활동을 통해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진복의원은 총립 동해중학교 출신으로 부산 동래구청장, 제18대 국회의원, 동해중학교 총동창회장을 역임하고 새누리당 부산 동래 지역구로 제19대 국회에 진출했다.

통리원=김종열 기자

## 총립 동해중학교 제148차 이사회 개최

신임이사 선출 및 추경예산 심의 통과

불교 총지종 학교법인 관음학사 총립 동해중학교(이사장 지성 정사) 제148차 이사회가 6월 24일 학교 법인실에서 열렸다.

이사장 지성 정사, 이사 인선 정사, 원당 정사, 강경중, 김무남, 정영문, 등 총원 7명에 6명이 참석했다. 안전으로는

대원 정사 열반으로 공석이 된 이사직 추천과 학교 추경예산 심의안이었다.

이사회는 공석인 이사에 부산 정각사 주교 정인화 전수를 추천하고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또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실장과 관계자의 현황보고를 들은 후 이를 통과 시켰다.

신임 정인화 전수는 총기22년 지송급에 전수되어 승직에 임용되었다. 제8대 중앙종의회원원을 역임하고 현재 정각사 주교이다.

동해중학교= 정교 법선 정사

## 전국불교합창단 임원연수회 개최

불교합창단 임원 200여 명 동참



▲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전국 불교합창단 임원연수

전국불교합창단 임원 연수가 6월 19일에서 20일까지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렸다. 불교

문화부(문화부장 진명 스님)가 주최하고 한글불교종단협의회 후원으로 열렸다.

연수 프로그램으로 김기연 강사(힐링연구소)의 『스트레스 해소, 살 맛 나는 세상』을 주제로 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통해 지역별 활동현황 보고가 있었다.

조계종 문화부장 진명 스님은 『마음을 비추는 음악』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불교음악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평정심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에 한발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라며 합창단 여러분의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모든 사람에게 법음을 흥포하기를 서원했다.

공주=최영아 편집위원

## 엄마! 여행 다녀올게요...

『참된 나를 찾는 여행』 성황리에 진행 중

불교총지종이 주관하는 『참된 나를 찾는 여행』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5-10명의 친구들이 스스로 여행계획을 짜고, 멘토와 함께 자유로이 1박 2일간 떠나는 여행이다. 지금 까지 230여 명의 초, 중, 고 참가자들이 여행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불교총지종 총무부장 인선 정사는 “한 가정, 한 자녀의 핵가족 시대에 접어들어 우리나라는

아이들의 자립심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모든 것을 부모에 의존하는 마마키즈, 파파키즈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자립심을 키우고 스스로 세상을 생각하고 개척해 나가고 독립심과 친구들간의 협동심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불교총지종은 오는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이번 여행에 참가한 학생 전원이 동참하는 『한마음 캠프』를 연다. 이 캠프에서는



참가자들의 여행 후기와 우수 참가자 시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통리원 = 김종열 기자

## 일원어린이집 이지민 교사

강남구 어린이집 우수 교사로 선정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일원어린이집(원장 하재희) 이지민 교사가 강남구가 선정하는 어린이집 우수 교사로 선정 되었다.

이지민 교사는 2009년 일원어린이집에

임용되어 현재는 열매반을 지도하고 있다. 평소 어린이 보육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는 근무 자세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 교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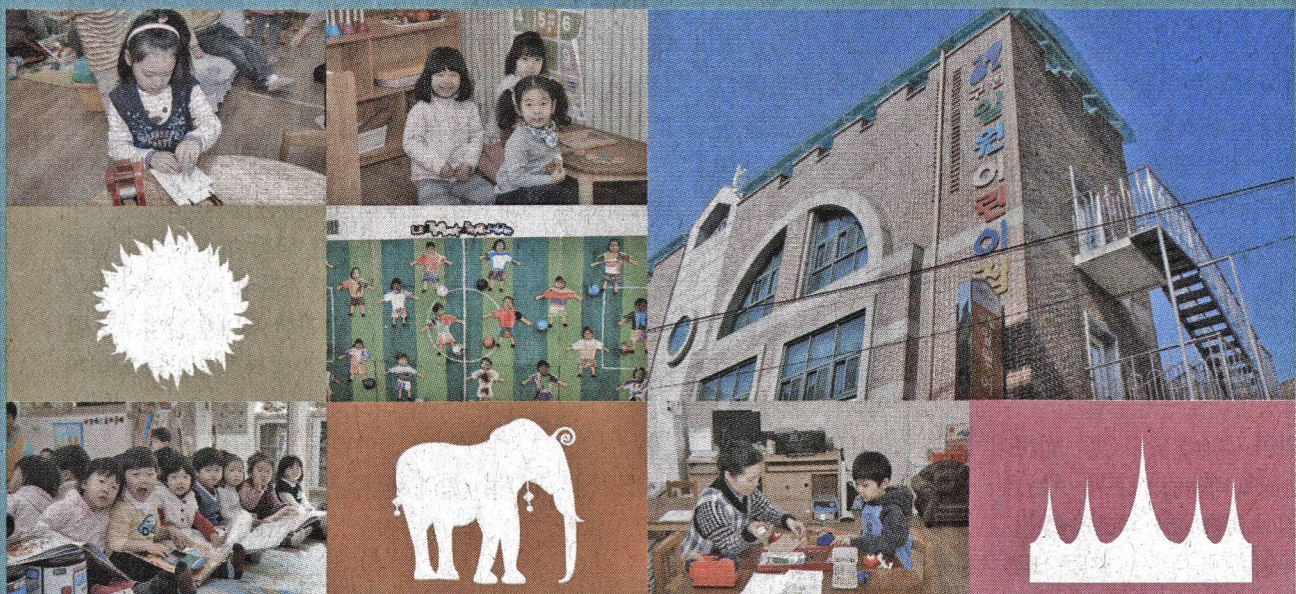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은 “요즘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일부 어린이집의 불성실한 보육현황은 교사들의 기본적인 인성 자질 문제와 운영 체계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됩니다. 이지민 교사 같은 우수한 교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안심 보육이 더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라며 이교사의 우수한 인성을 칭찬했다.

이지민 교사는 우수교사 선정의 포상으로 강남구에서 주최한 우수교사 제주도 연수를 다녀왔다.

사회복지재단 = 김지영 교무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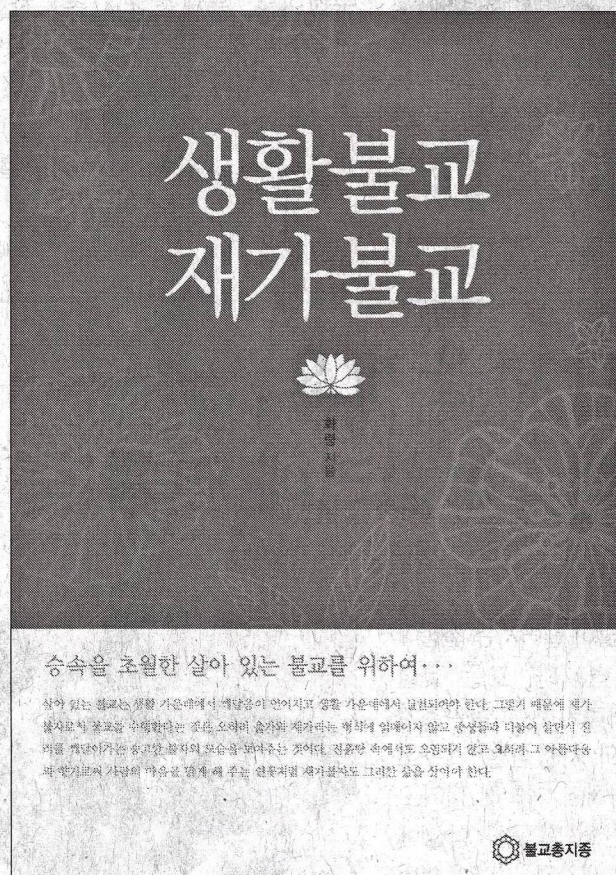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원로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관리동 1층  
문의: 02-445-2326



## 《생활불교, 재가불교》출간 기념 특별 대담-화령 정사

## 「생활불교, 재가불교」

##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화령 정사님, 안녕하십니까? ‘정심사’ 정비 관 계로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령:예, 성도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생활불교, 재가불교》의 출간을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의 불교 트렌드가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오늘날, 재가종단인 우리 총지중에서 이러한 책을 출간하게 되어 의의가 훨씬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내시기로 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화령: 재가 불교공부를 시작할 무렵부터 불교는 생활화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부처님의 말씀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더구나 우리 총지중은 창종 당시부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해 왔기 때문에 생활불교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는 책을 꼭 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우리 종단에서 주관해 온 국제재가 불교지도자포럼(International Lay Buddhist Forum; 약칭 ILBF)에서 발표한 글들이 있어 이를 한데 묶어보았습니다.

우선 재가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령: 재가불교는 글자 그대로 출가를 하지 않고 세속에서 재가자로서 불도를 닦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의 대부분이 재가불자가 되는 셈이지요. 전체 불자 중에서 출가승들에 대한 재가불자들의 비율은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포교나 수행의 모든 초점은 재가불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맞추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출가승들에게만 의지하여 불도를 닦고 복을 비는 그런 불교는 지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출가승들은 출가승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불교는 죽은 불교이지요. 그래서 재가불교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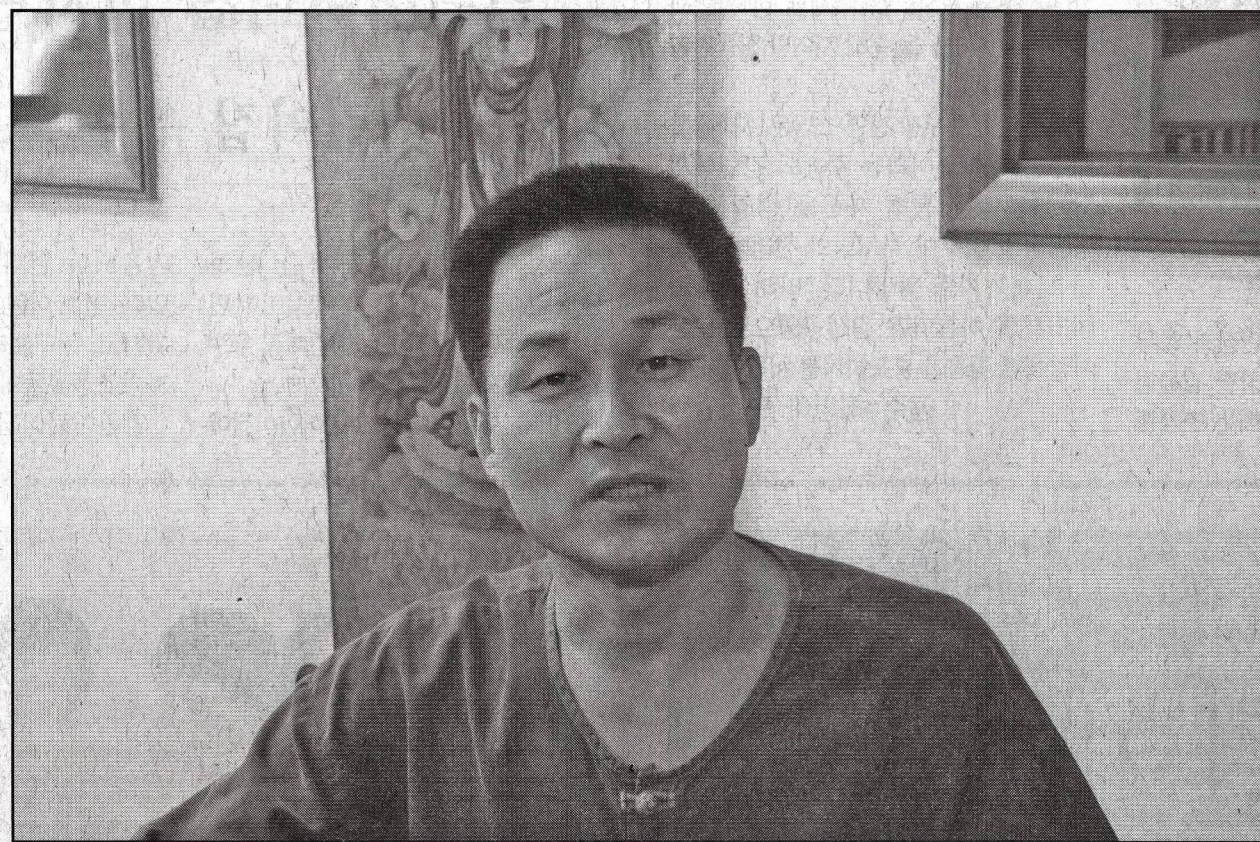
그럼 생활불교라고 하면 정확한 개념이 어떤 것입니까?

화령: 생활불교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생활 가운데에서 불교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아시아의 불교는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또 선불교가 수행의 대중을 이루다 보니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진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념적으로 흐른 경향이 많지요. 그래서 생활불교라면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고 또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 일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수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생활불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교라고 하면 전통사찰과 삭발한 스님들의 모습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일반 불자들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출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령: 지금은 출가를 하더라도 과거처럼 한적한 곳에서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명한 사찰은 이미 관광지화 된지가 오래고 템플 스테이다 뭐다해서 일 년 내내 떠들썩하지요. 그리고 출가승이라도 거의 대부분이 텔레비전이다 인터넷, 휴대폰을 필수품으로 여기고 있는 실정이니 출가생활의 분위기가 예전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가용들이 있으니까 세인들과의 접촉도 많은 편이구요. 거기다가 대부분이 한 가정에 한 두 자녀씩 밖에 없으니 출가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드는 형편이지요. 원래 불도를 닦는 데는 출가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부처님도 세속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디에 있던 자신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모든 불자들이 반드시 출가승의 흉내를 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깨달음을 얻는 데는 출가와 재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리불이 언젠가 말씀하시기를 숲에 살면서 고행을 하더라도 마음이 불결하고 번뇌로 차 있으면 재가생활을 하면서도 청정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에서 화령님께서도 출가와 재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생활불교 재가불교」를 출간한 총지중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철학박사)

화령: 예, 사실 그렇습니다. 출가와 재가는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단지 과거와 같은 한적한 수행환경이라면 출가해서 수행하는 것이 재가생활을 하면서 닦는 것보다는 모든 면에서 효율적일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속의 복잡다단한 환경 속에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 지니고 대승보살로서의 육바라밀행을 실천한다면 그것이 사회에 직접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보다 거친 황야에서 피는 들꽃이 더욱 강인하듯이 재가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자신을 단련하는 것이 더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더라도 마물로 돌아와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참된 불자의 도리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출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형식이지 그것이 궁극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출가해서 수행하면 세속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수행에 더 전념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출가생활로 인해 세속과의 소통에 문제가 많은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령: 물론 출가하면 재가불자들이 신시(信施)로써 출가승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줍니다. 출가승들은 그만큼 세속의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지요. 이른바 먹고사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치지 않기 때문에 수행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사회와 단절되다보면 세상물정에 어두울 수가 있고 재가신자들을 이끄는 방편의 구사에 대해 무지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방송이나 불교텔레비전에서 스님들이 나와서 설법을 해도 대중들에게 크게 어필을 못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지요. 지금이야 일부 젊은 스님들이 대중들과 소통을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지만 그래도 타종교에 비해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미약합니다. 우리나라의 불교의 낙후성은 출가승들이 대중과 소통을 하지 못한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출가 위주의 불교에 집착하다 보니 생긴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가승들이 스스로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할지 모르나 오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에도 대중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가불교가 출가불교보다 더 나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화령: 불도를 닦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교양을 함양하고 세속의 윤리도덕을 준수하면서 인격

가신자인 우바세, 우바이의 사부대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절에 가야 경전도 구할 수 있고 법문도 들을 수 있었으며 수행에 대한 지도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출가승단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열린 세상이 되어 모든 경전은 인터넷 상에서도 쉽사리 구할 수 있으며 불교에 관한 한 비밀이란 것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승가의 개념도 당연히 사부대중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제는 불자들이 스스로가 승보가 되어야 한다는 자각을 지녀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하고 널리 윤표시키는 것이 승보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는 사회와 소통을 하지 못하는 출가승들에게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불자가 승보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널리 펼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가불자들이 앞장서고 잘 실천해야 불교가 살아납니다. 한국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러합니다.

재가불자들이 승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재가불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 철저한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매너리즘에 빠진 한국불교에 자극이 될 만한 말씀 같습니다. 재가불자들이 승보의 역할을 하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화령: 불교의 실천 요체는 사실 오계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을 보면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오계가 잘 준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계만 잘 지키고 생활에 나가도 훌륭한 불자로서 손색이 없겠지요. 그렇지만 한국불교의 현실을 보면 대승불교라는 미명하에 음주와 육식 등 출가승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기초적인 덕목도 준수하지 못하면서 더 큰 깨달음을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상누각이요. 모래로 밥을 짓는 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활불교를 주창하는 것입니다. 뜬 구름 잡는 식의 일상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관념적인 불교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행주좌와 모든 것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정념을 놓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불자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인 것이지요. 불자로서 반드시 출가승이 되지 않더라도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가 실천되면 새로운 승보상이 저절로 확립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자랍시고 출가승들의 흉내만 내다가 지쳐버리는 그런 불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자리에서 실천되고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 자신이 괴로움을 벗어나게 되고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화령: 출가와 재가는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거기에 우열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경전에 나타난 부처님의 진의(眞意)이며 또한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생활불교는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생활상에서 실천되는 불교입니다. 가정과 사회에 머물면서도 거기에서의 역경과 시련을 수행의 도구로 삼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잘 실천하고 이어간다면 승보가 달리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이 참된 불자가 되는 길입니다. 불교의 궁극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대명제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당장 이 자리에서 실천되고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불교를 합시다. 이것이 이번에 《생활불교, 재가불교》를 출간한 저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모든 불자들이 이 책을 계기로 행복한 일상을 열어가 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화령 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시 : 2013년 6월 22일  
장소 : 법장원 유가실  
대담 : 김종열 총지중보 편집부장  
정리 : 배공주 기자

그래도 삼보의 하나인 출가승들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화령: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승보가 출가승뿐이라는 등식은 오해입니다. 원래의 승가는 비구, 비구니와 함께 재



지상설법

보살의 삶



대구 개천사 주교 우인 정사

보살은 자기 자신이 아픔을 겪을 때 타인의 아픔을 함께 생각하고 또 이웃이 겪는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겨 이 땅에 다시는 아픔이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살이 한번 발심하기만 하면 이후 계속해서 처음 발심했던 마음을 그대로 지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속담이 있듯이 자신이 고통스러움을 겪을 때 그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발심했다 하더라도 자기 생활이 그 고통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안일 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의 생활입니다.

인간은 동물보다 뛰어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특별한 존재도 아닙니다.

주어진 생활 속에 쉽게 안주하고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라 마음도 변하게 마련인 것이 인간입니다.

따라서 한번 발심한 그 뜻으로 성불할 때까지 보살행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참회와 자기 성찰이 요구 됩니다. 그래서 보살은 개인 관계에서든 사회적 차원에서든 이타행을 하는 과정에서든 내가 남을 위하니까 훌륭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지낼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반성을 해야 합니다. 보살은 무엇보다도 겸손 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에 太公曰(태공왈) 勿以貴己而賤人(몰이귀기이천인)하고 勿以自大而蔑小(몰이자대이멸소) 하고 勿以恃勇而輕敵(몰이시용이경적)이니라 나를 귀하게 여김으로서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 것이며 나를 크다고 여겨 남의 작음을 멸시하지 말 것이며 나의 용기를 믿고 적을 가볍게 보지 말라 그래서 매사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겸손하지 않으면 한 순간에 아상을 갖게 되고 그 아상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기는커녕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 고통에 빠트리게 됩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장율사는 신라시대의 스님으로서 당나라에서 수행할 때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마정수기를 받게 됩니다. 신라시대 불교계율의 시조를 마련하고 불법의 일대부흥을 일으켜서 최고 승직인 승통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장율사는 문수보살 친견 시 제가 열반에 들기 전에 한번만 더 보살님을 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는 청을 드립니다. 이에 문수보살은 태백산에서 다시 만나자 고 약속 합니다.

그래서 자장은 노후에 직위에서 물러난 후 태백산에 있는 정암사 뒤편에 기도처를 마련하여 시자 한사람만 데리고 기도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산속에 칩니다. 토굴을 지어놓고 백일기도를 올렸습니다. 백일째가 가까워 올수록 기도의 정성은 더욱 극진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머리를 풀어 헤친 채 다 떨어진 허름한 옷을 입고 망태기만 하나 걸친 거지행색의 사람이 움막집 앞에서 자장 있느냐 고 외치는 겁니다. 시자가 나와 보니 아주 불결한 차림에다 죽은 개가 들어있어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망태기를 걸치고서 함부로 자장의 이름을 불러대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치 신성한 기도 도량을 비웃기라도 하듯 악취가 풍기는 죽은 개를 메고서 임금님도 없드려서 절을 할 만큼 귀하신 자장율사를 멋대로 불러대니 시자가 응해주지

날아간 후였습니다. 사라져가는 문수보살을 바라보며 아가다가 자장율사는 그만 입적을 합니다. 여기서 예를 든 것은 자장율사를 낮추어 보아서가 아니라 그처럼 도력이 높고 훌륭한 수행자도 한순간 아상에 가리어 진실을 바로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순간적인 아상 때문에 보살을 친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보살이라 하여 백의를 걸치고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자 천대받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들 곁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성불하신 뒤 45년간의 일생을 다 떨어진 옷 한 벌만을 걸치고 다니셨습니다. 마을에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만약 보살마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라고 한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을 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온전한 보살행을 이룰 수 없다

않았습니다.

왜 찾느냐고 시자가 묻자 너는 알바 아니다 자장을 좀 보자고 하며 버티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자는 할 수 없이 토굴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정진의 도가 점점 깊어지고 기도는 점점 무아지경에 도달하는 차에 이상한 자가 찾아와 방해를 한다 싶어 돌려보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그 거지는 돌아가리다 돌아가리다 아상이 있는 자가 어찌 나를 보겠는가 하면서 망태기를 탁 터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죽은 개는 사자좌가 되고 그 위에 가볍게 올라타고 구름저편으로 날아가는데 바로 그분이 문수보살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자장율사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뛰어나오니 이미 문수보살은 저 동쪽 하늘가로

훽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이 기근에 허덕이면 그 분도 함께 굶주렸고 마을 사람들이 말먹이로 허기를 달래면 그분도 함께 말먹이를 드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부처님이 십니다. 부처가 부처인 것은 금빛 찬란한 옷, 삼십이상 팔십종호라는 찬란한 몸매, 타고난 웅변과 위엄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중생과 함께하고 중생 스스로가 성불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셨기에 부처님이 십니다. 소위 자장율사 같은 분도 아상을 버리기 어려운데 하물며 어떻게 우리 같은 중생이 쉽게 아상을 버릴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상은 무지몽매하다는 민중들 보다 수행자나 도인 지식인등 소위 지각 있다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습니다. 금강경에 보면 보살의 길을 가는 사람들 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러나 만약 보살마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니라고 한 뜻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을 버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온전한 보살행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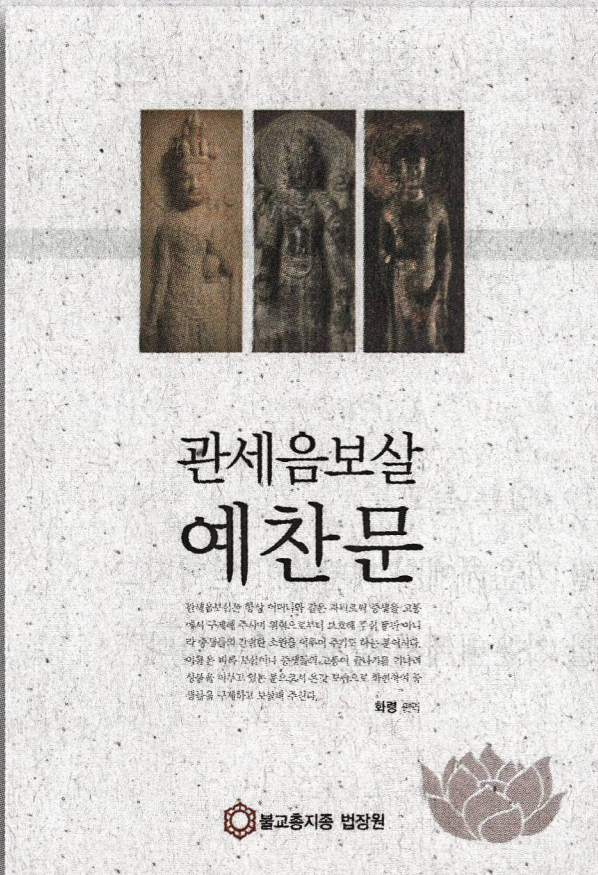
수행에 필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잘못된 것과 단절하는 단호한 마음과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비굴하지 말고 당당해라 그리고 너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 하라 비굴해서도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당당하되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당당 하라는 것은 내 주체를 상실하지 말라는 말씀이며 겸손해야 함은 타인의 당당함 그 주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올바로 발심하여 자기 삶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지 않으면 보살행을 정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보살은 어떤 특별하게 화려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상에 가리워져 있을 때 바로 그 상을 깨우쳐주는 계기로 다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발심하는 것도 중요하며 또 수행을 해 나갈 때 자신을 되돌아 봄도 아주 중요합니다. 보다 나은 사회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보다 깊이 생각해 보고 반성하고 참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들 중에 상당 부분은 어떤 면에서 필요 없는 고민일수 있습니다. 현재의 자기 인생에서 추구하는 이기심은 자주적인 인간이 되는 삶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우리들 스스로 인간을 평등하게 보려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나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시정되어야 옳다고 판단되는 일이라면 그 생각대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감정과 이기심을 버리지 않으면 그 어떠한 곳에서도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란 어려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구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훴의 의미와 수행법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사가 8,000원 (10권 이상)



# 대관령 재궁골 국사 성황사와 산신당

## 대관령 성황이 된 범일국사와 산신 김유신 장군



▲ 대관령 재당골 산신당 전경

해마다 음력 5월 5일에 강릉 시내는 떠들썩하다. 양수인 5가 돌이나 겹쳐 일 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다. 농경문화 중심의 우리민족은 이날 파종제를 하늘에 올리고, 본격적인 모내기 들어간다. 단오는 수릿날, 천중절, 중오절, 단양절 등으로 불렸다. 민간에서는 단오세시풍습으로 물맞이, 창포물에 머리 감기, 씨름, 그네뛰기 등 다양한 민속 놀이들이 펼쳐진다.

특히 강릉지역 단오제는 대관령 성황과 산신에게 제의를 올리고, 강릉으로 모셔오는 '신주빋기'로부터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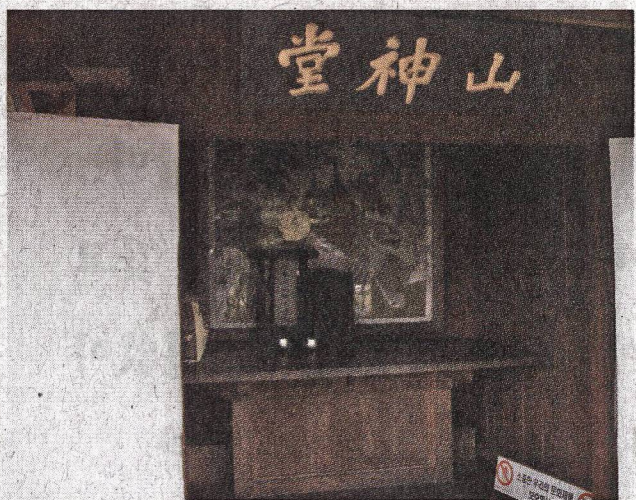
### 범일국사와 김유신 장군 그리고 허균

대관령 산신은 신라의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김유신 장군이다. 이를 처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은 홍길동전의 저자인 허균이다. 허균은 유교집안에서 태어나 유학을 학문의 기본으로 두고 있었으나 당시의 이단으로 지목되던 불교·도교에 대하여 사상적으로 깊이 빠져있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한때 출가를 생각하기도 했을 정도로 불교의 진리에 깊이 심취했다. 또한 불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고서도 자기의 신념에는 아무런 흔들림 없다고 당당히 밝혔다.

허균은 1603년에 명주에 머물며 단오제를 보고 기록을 남겼다. 김유신은 명주에서 공부하면서 대관령 산신에게 무예를 배웠고, 선지사에서 칼을 만들어 삼국을 통일했다. 그는 죽어서 강릉의 수호신, 산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유신이 대관령 산신에게 무술을 배웠다는 것은 삼국시대 이전에도 산악신앙의 숭배가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다. 삼국유사에는 석탈해가 죽어 토함산 산신이 되었다는 기록도 전해 신라인의 산신신앙의 단면을 알 수 있다.

강릉단오제의 주신으로 추앙되고 있는 국사성황신은 산신과 마찬가지로 언제 어떻게 자리를 잡은지는 정확하지 않다. 하지만 강릉 지역에서는 신라 고승 범일이 국사성황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범일 스님을 대관령 성황으로 밝힌 기록은 1931년에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생활상대조사 강릉군』 대관령 새신부분에 "대관령에는 한 개의 성황이 있는데, 즉 범일국사로서 강릉에서 출생했다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대관령 재당골 산신당

국사성황인 범일국사는 신라 말과 고려 초까지 활동한 고승이다. 강릉사 구경면 학산 출생으로 탄생에 얽힌 설화가 전한다. 처녀가 해가 떠 있는 샘물을 마시고 태기가 있었고 아이를 낳았다.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이 두려워 뒷산 학바위에 버렸으나, 학이 보살펴 기이하게 여겨 다시 데려와 키웠다. 국사는 비범한 외모와 뛰어난 학문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출가하여 신라 말에 국사가 되어 이름을 떨쳤다. 또한 죽어서 대관령 서당신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설화는 범일의 신이한 탄생과 모험 그리고 위인이 되고, 죽어서 신으로 등극하는 과정을 영웅담처럼 차례로 보여준다. 일부에서는 범일을 풀 범(泛)자, 해일(日)자로 쓰기도 하는데, 이는 신화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원명은 범일(梵日)이며, 국사성황이 바로 신라 고승 범일국사라는 사실을 증명한다.



▲ 대관령 재당골 산신당 산신평

### 범일국사의 다른 모습

대관령 재궁골로 가는 길은 한적한 시골길을 지나 산으로 오르는 길은 아니었다. 동서울 터미널에서 진부와 회계를 거쳐 강릉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중간 기착지인 회계에서 내려야 한다. 지금은 복선화되어 새로 개통된 고속도로 덕에 2시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하다. 회계 지역은 시내버스가 드물다. 하는 수 없이 택시를 대절하여 재궁골로 이동했다. 대관령 휴게소로가는 구 도로를 이용하여 약 6KM 정도 가다, 대관령 목장을 지나 좌측으로 접어들면 재궁골이 자리한다. 대관령 능경봉에서 선자령으로 이어지는 능선 아래 계곡이다. 재궁골은 이 계곡의 동쪽 숲속의 빈터에 위치한 아늑한 곳에 국사성황 범일국사를 모신 성황사, 산신 김유신 장군을 모신 산신당이 있고, 기도처인 칠성당과 용정이 모여 있어 '신타라' 불리운다.

주차장을 지나 관리동 좌측으로 성황사가 보이고, 그 뒤로 산신당, 용정, 칠성목(木)이 자리한다. 때마침 단오를 맞아 성황사에서는 신주굿이 벌어지고 있었다. 남자인 박수 무당이 조상신들에게 치성을 들이는 여인네를 성황신의 조력으로 재복을 비는 무속 신앙을 펼치고 있었다.

굿 판 너머로 보이는 성황신의 팽화는 기자가 상상했던 범일국사의 모습이 아니었다. 양옆으로 호랑이의 호위를 받으며 부관이 고삐를 쥔 백마를 탄 무관의 모습이다. 한손에는 활까지 쥐고 있다. 분명히 불교의 고승대덕의 모습은 아니다. 이는 무속 신앙인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그형상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대관령의 성황은 인자한 고승의 모습보다는 나그네와 마을을 지켜주는 무장의 모습이기를 염원한 탓이라 추정된다.

성황당 뒤편으로 자리한 산신각에서도 나의 예상은 그대로 빗나갔다. 김유신 장군의 모습을 상상하고 전각 앞에 다다르니, 여느 산신각과 같이 긴 수염에 상투를 틀고 한손에는 부채를 쥐었다. 동자의 선도 복숭아 공양을 받으며 옆으로 호랑이를 두었다. 이 팽화 역시 산신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변한 김유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 특히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부채다.

### 유교와 무교의 절묘한 만남



▲ 대관령 재당골 성황사 성주도(범일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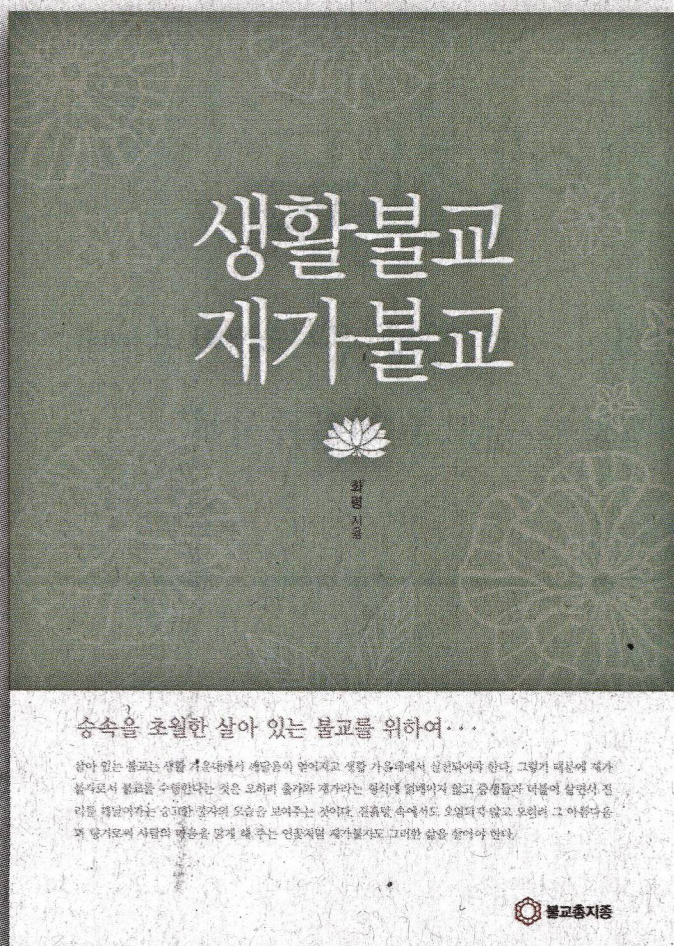
강릉단오제의 가장 재미있는 상황은 재궁골 성황당 앞에서 벌어진다. 불교나 무속을 사이비로 치부했던 유교식 제사가 단오를 앞두고 이곳 성황신인 범일국사에게 올려 진다. 유교식 제사에 이어 무교식 굿 판이 벌어지는데, 상극의 이념을 가진 두 제의가 서로 충돌할 것 같지만 재궁골에서는 이를 모두 포용하는 자리를 펼친다.

단오제의 제례는 신주빋기부터 산신제, 성황제, 봉안제, 영신제, 네번의 조전제와 마지막으로 송신제 까지 9번의 제례를 지낸다. 제례를 지내는 형식은 모두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신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강릉 단오제는 산행길의 안전이나, 바다를 접한 동해안 주민들의 풍어, 집안의 태평등을 기원하는 제의와 민속놀이의 전통 문화 요소들이 잘 보존되어 1967년 중요무형문화제 제13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재궁골 역시 강원도 평창군에 속하지만 강릉시가 지역을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 생활불교 재가불교

화령 저 | 불교총지중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사가 6,000원 (10권 이상)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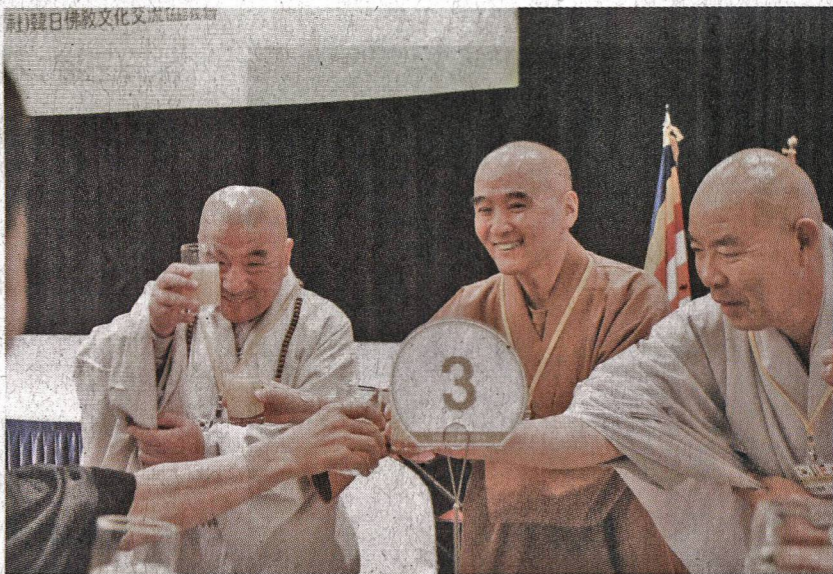




#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백제문화권:공주, 논산) 전통불교문화 보존과 계승을 위해 양국이 노력하기로



▲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공식 환영만찬



▲ 건배하는 한일 대표들



▲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제34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공주 일원에서 열렸다. 불교총지종은 통일원장 법등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재무부장 우인 정사, 사회부장 지정 정사, 교정부장 원당 정사, 밀교연구소 변경 정사, 서울, 경인 교구장 범우 정사, 대전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가 대표단으로 참가 하였다.

## 공식환영만찬

17일 오후 2시 조계사에 집결한 한국대표단은 환영 만찬 장소인 대전 리베라 호텔에 향했다. 오후 6시, 양국의 대표단 수행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공식 환영 만찬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먼저 한국 불교를 대표하여 한일불교문화 교류협의회 부이사장 총화종 남정 스님은 "오늘 환영 만찬회를 통해서 한일 양국의 불자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자비하사의 시무량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함께 기뻐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기를 불보살님 전에 축원 드립니다."라며 일본 측 대표단을 환영했다.

일한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니시오가 료코 스님은 "제작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을 강타한 큰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이만여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불교계의 다대한 위로와 두 번에 걸친 합동위령법요에 참석해 주셔서 희생자들을 회향해 주신 점을 진심으로 예를 올려 감사드립니다."라고 한일 불교계의 우호와 동일본 대지진 참사 합동위령제에 대한 고마움을 전달했다.

이어 한국 측 부회장 조계종 항적 스님, 일본 측 부회장 모찌다 니찌유 스님,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정무부지사 박정현 대독)의 축사와 교류회 한국 측 신도회 이희구 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한국 전통의 타악공연과 승무 공연으로 분위기는 한층 고조되었다. 이번 대회의 주관 사찰인 조계종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불교지도자들이 선한 마음을 나누는 우호적인 문화교류에는 신뢰와 평화를 쌓아 세계평화와 화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선인들의 뜻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며 건배를 제의하고 다 같이 축원했다.

그러나 만찬 마지막 즈음에 한국 측 대표 조계종 보광스님, 진관스님이 일본 측 부회장 모찌다 니찌유 스님의 축사 중에 나온 삼국시대의 역사 중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 관련 발언과 청일, 중일 전쟁 등 식민지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 측 대표들은 즉시 사과와 발언 삭제를 요구하였다. 일본 측 발언의 당사자는 즉시 연단으로 나와 한국 측 대표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또한 발언을 자진 삭제한다고 행사 집행부에 요청했다. 같은 불조 해명의 제자로 진리를 추구하는 양국의 대표들은 아직도 가깝고 먼 생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만찬 후 한국 측 대표들은 숙소인 공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으로 이동했다.

한국 측 회장 조계종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불교문화의 계승과 보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양국의 불교문화가 종교를 넘어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핵심적인 사상이고, 삶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대회가 양국의 불교전통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불교문화를 보다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대중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겠습니다. "라며 불교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통해 양국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자고

명예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학술 세미나 후에는 전통불교문화원 근처의 마곡사를 참배 할 예정이었으나, 폭우로 취소되고, 양국대표단은 저녁 만찬장인 대전 리베라호텔로 향했다. 여장을 풀고 6시부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저녁 만찬은 양국 대표들이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하고 우호를 다지는 자리였다.

## 일본불교의 어머니 백제 불교의 본고장 순례

이번 대회가 열린 충남, 공주 일원은 백제의 옛 도읍으로 찬란한 백제문화의 꽃을 피운 고도이다. 백제 성왕(서기 538년)때 승려를 보내 일본에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다. 이후 고구려와 신라도 승려와 불상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는 사신을 통해 불상만 전한 것으로 보인다.

첫 순례사찰인 천태종 대전 광수사(주지 김영제 스님)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오른쪽으로 석가모니 부처, 왼쪽으로는 관세음보살을 안치한 대적광전을 지상 3층에 모신 현대식 사찰이다. 광수사에서는 간단한 예불을 올리고, 다과를 같이 하였다. 광수사 다도회 회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한국식 전통 다과와 차를 맞은 일본 대표단들은 정성에 모두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 순례지는 공주 동학사(주지 유곡 스님)다. 동학사는 비구니 사찰로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전통사찰이다. 신라시대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나, 그 근거는 확실치 않고 고려 태조 왕건의 명에 따라 도선 국사가 중창하였다. 보이지 않는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비구니 스님들의 정성으로 가꾼 사원은 계룡산의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둘러싼 한 폭의 그림이었다.

마지막으로 참배 한 곳은 논산의 개태사(開泰寺)다. 백제국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진 황산벌을 눈앞에 두고 서있는 사찰은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의 마지막 군사들을 소탕하고, 통일의 대업을 이룬 것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 되었다. 지금의 개태사는 원래의 사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중창되었다. 개태사 주지 양산스님은 미륵전에서 있는 합동예불을 마치고, 일본 대표들에게 다도를 선물하며, 마지막 여로에 편안히 귀국하시기를 서원했다. 이로써 사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친 양국 대표단은 내년 제35차 일본 대회를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공주= 김종열 기자



▲ 세계평화기원 대법회 후 기념촬영

##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본 행사

6월 18일 본 행사 대회 당일에는 충청 지역에 걸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밤새 장대비가 내렸다.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행사 당일 공주 지역 시간 당 최고 50mm의 강우가 쏟아졌다.

오전 10시 불교전통문화원 다목적 홀에서 양국 사무총장의 공동사회로 본 행사인 세계평화기원대법회가 봉행되었다. 개회선언, 삼귀례, 반야심경봉독과 양국회장스님의 헌화 순으로 이어졌다.

당부했다. 일본 측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술한 국난을 이겨내고 본 대회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양국 불교도의 끊임없는 우호 친선의 덕분이며, 바로 계승의 힘이 불조의 힘을 받아서 오늘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양국의 우호와 신뢰 관계가 더욱 더 발전되기를 서원 했다. 이어 한국 측 사무총장 홍파스님의 상축문과 일본 측 부회장 후지다 류조 스님의 표백문 봉독, 양국대표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세계평화 기원 대법회는 사용서원을 끝으로 기념 촬영 후 끝났다. 잠시간의 휴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학술세미나에 들어갔다.

## 전통불교문화 어떻게 계승 보전 할 것인가?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공식행사인 학술세미나에는 한국 측 부회장 진각종 회령 원장은 인사말에서 "양국 불교학자들의 공유된 가치는 '전통문화는 기초이자 민족의 정체성이며 문화산업의 핵심 키워드' 라는 사실입니다."라며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발전의 과제를 통해 서로 공감하는 방향을 찾아 나가자고했다.

주제발표에서 한국 측 발표자로 나선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전통불교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대한 단상"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고, 일본 측에서는 "동아시아에 유포한 정토교의 사상"에 대해 오자와 겐주 스님(대정대학



▲ 개태사 주지 양산스님의 선물증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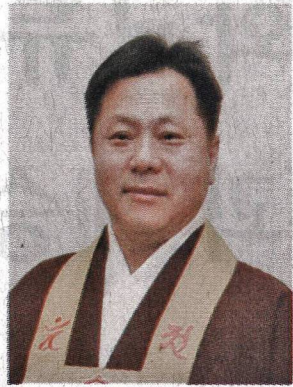


▲ 동학사 주지 유곡스님의 사찰 역사소개



《밀교연재》 **법경 정사가 전하는  
밀교의 불보살 이야기 (15)**

## 대세지보살 (大勢至菩薩)



법경 정사

### 아미타삼존불의 오른쪽 협시보살로서 지혜문(智慧門)을 열고 있는 보살

대세지보살은 아미타삼존불 가운데 한 분으로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있는 보살이며 지혜문(智慧門)을 열고 있는 보살이다. 자비문(慈悲門)을 담당하고 있는 보살은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로써 중생을 구제하고 극락왕생케 하는 아미타불의 좌우보살에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셔져 있다. 이를 아미타삼존불이라 한다.

이 대세지보살은 보관(寶冠)을 쓰고 보관에는 보병(寶瓶)이 들어 있으며 왼손은 연꽃을 들고 있는데, 지혜의 광명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보병(寶瓶)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보병 속에 물(水)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서수(誓水)라 한다. 서수는 대개 관정(灌頂)을 행할 때 사용하는데 이 관정수(灌頂水)를 중생들의 정수리에 뿌려주면 중생들의 업장(業障)이 녹아지고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이끌어 준다고 한다. 보병(寶瓶)은 바로 지혜수(智慧水)를 담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대세지보살이 태양의 광명을 보병에 담아서 머리에 꽂고 계시는데 이 광명(光明)의 빛으로 중생들의 괴로움을 그 광명의 빛으로 녹여주소한다고 한다. 이 광명은 지혜의 광명임을 말할 나위가 없다. 왼손에 들고 있는 연꽃은 관세음보살을 위시하여 대부분의 보살들이 지니고 있는 공통된 지물(持物)인데, 이는 중생구제와 깨달음의 인도(引導)를 의미한다.

### 대세지(大勢至)는 ‘큰 힘을 얻게 하는 보살’, 중생구제에 ‘대단한 힘, 세력을 가진 보살’

대세지보살은 흔히 아미타삼존불이라 하여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등장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보살 대신에 지장보살을 협시보살로 하여 아미타삼존불로 모시는 경우도 있다. 대세지는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비추어 육도(六道) 가운데 삼도(三道 : 지옥, 아귀, 축생)에 빠져 있



▲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호림박물관의 금동대세지보살좌상  
(사진출처 : 문화재청)

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위없는 힘을 주는 보살이다. 그래서 대세지(大勢至)라 한다.

이 대세지보살을 달리 대정진(大精進), 득대세(得大勢)라 하며, 줄여서 대세(大勢), 세지(勢至)라고도 하는데, 그 이름 속에는 ‘큰 힘을 얻게 하는 보살’이란 뜻을 담고 있다. 중생을 구제하는 데 대단한 힘, 세력을 가지고 있다 하여 ‘대세지(大勢至)’라 한 것이다. 또 대세지보살이 발을 내디디면 삼천 세계와 마군(魔群)의 궁전이 진동하므로 대세지라고도 한다. 그 올리는 곳마다 5백억 송이의 보배꽃이 피고 그 꽃은 극락세계의 연못에 핀 연꽃과 같다고 한다. 또 대세지보살이 앉을 때는 칠보로 된 국토가 한 순간에 흔들리며, 그 올림은 아래쪽으로는 금강불국토까지 이르고 위쪽으로는 광명불국토까지 이른다고 한다.

### 삼도(三道 : 지옥 아귀 축생)의 중생을 구제하고 지혜의 광명으로 깨달음으로 이르게 하는 보살

대세지보살은 중생들을 서방 극락정토로 인도할 때에 대부분 합장례를 취하고 있는 것이 통례다. 불화(佛畵)를 유심히 살펴보면 그 점을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합장은 염불하는 수행자를 맞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전에서는 대세지보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보살의 크기는 관세음보살과 같고 그 원광(圓光)의 지름은 125유순이며 온몸에서 나투는 광명은 금색으로 시방세계의 모든 나라를 다 비추는데 인연이 있는 모든 중생은 다 볼 수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보살의 한 모공(毛孔)에서 나오는 광명만 보아도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들의 청정하고 미묘한 광명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이 보살의 이름을 ‘끝없는 광명’, 즉 ‘무변광(無邊光)’이라고도 한다.

이 보살의 보관(寶冠)은 500가지의 보배로 장식되어져 있고, 그 하나 하나의 보배꽃에는 500여개의 보배 꽃받침이 있으며, 그 날날의 꽃받침에는 시방세계의 청정 미묘한 불국토의 드넓은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한다.

이 보살을 산스크리트어로는 Mahāsthāmaprāpta(마하스타마프랍타)라고 하는데, 마하(Maha)는 ‘크다’는 뜻의 ‘대(大)’를 의미하고, 스타마(sthāma)는 ‘힘 또는 세력’을 의미하는 중성명사로 ‘력’ 또는 ‘세(勢)로 한역됐다. 프랍타(prāpta)는 ‘가득 채운다’는 뜻의 프라(pra)의 과거분사로써 ‘가득한’ ‘충만한’이란 뜻으로 ‘큰 힘으로 가득찬 보살’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득대세(得大勢), 대세지(大勢至)라 한 것이다.

『대일경』에서는 ‘득대세(得大勢)라 한역(漢譯)하였는데, 자비가 넘쳐 흘러 있어 중생들에게 자유자재로 준다는 것에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또 중생들에게 보리심(菩提心)의 종자를 뿌리고 중생들의 선심(善心)을 능히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태장계만다라에서는 연화부(蓮華部)의 지명왕(持明王)이라고도 한다. 광명(光明)을 지니고 있는 보살이라는 의미이다.

『대일경소』에서는 왼손에 있는 연꽃이 완전히 피어나지 않고 들린 상태로 있는 것은 아직 깨달음을 이루지 못한

중생이 자비를 통해서 꽃을 피워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은 중생세계요 중생의 마음이며, 연꽃은 자비이며 불(佛)의 세계, 깨달음의 상징이다. 밀교에서는 대세지보살을 지륜금강(持輪金剛)이라 부른다. 연꽃이 아니고 수레바퀴로 묘사된 것이 특이하다.

대세지보살은 아미타삼존상에서 아미타불의 협시보살로 많이 제작되었지만 독립된 예배 대상이나 본존으로 제작되거나 신앙되는 예는 거의 없다. 또 대세지보살에 대한 독립된 경전도 없다. 단지 『관무수량경』에 “이 보살의 몸은 관음(觀音)과 같으며 원광(圓光)을 지녀 널리 비추고 있다. 머리 정상(頂上)의 육계(肉髻) 위에 보병(寶瓶)이 하나 있다. 그 밖의 신체의 모습은 관음과 같다”라고 설명되어 있을 뿐이다.

대표적인 대세지보살상으로는 전남 광양 무등암의 목조 대세지보살좌상(木造大勢至菩薩坐像)이 있다. 대세지보살좌상에서 발원문, 진신사리보치진언문, 후령통 등의 복장물이 발견되었으며, 보살상의 절대 연대와 봉안처, 조성동기, 시주자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경남 고성 보광사의 목조대세지보살좌상(木造大勢至菩薩坐像)이 있다. 이 보살상은 봉황과 구름문양, 그리고 꽃문양이 장식된 화려한 보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손에는 기다란 연꽃 줄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히 들었으며, 손가락에 정병(淨瓶)이 들려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 제2의 석굴암이라 불리는 경북 군위 인각사의 삼존석굴(三尊石窟)이 유명하다. 보각국사 일연이 머물면서 삼국유사를 썼다는 인각사의 인근에는 자연동굴 속에 아미타불과 대세지보살,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지상 20m 높이에 있는 동굴의 불상은 제2석굴암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경주 석굴암보다 1세기 이상 일찍 창건된 것으로 밝혀져 세계적 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또 서울 관악구 신림동 호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 대세지보살좌상(金銅大勢至菩薩坐像)도 유명하다. 이 보살상은 구슬로 치레한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다. 정면 중심에 정병(淨瓶)이 큼직하게 새겨져 있어 대세지보살상임을 알 수 있다. 보관의 중앙에는 높고 큼직한 보계(寶髻)가 솟아 있으며, 끝을 구슬로 치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인도 보살상 내지 티베트 불보살의 보관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다음호에서 허공장보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경북 군위의 삼존석굴 (사진출처 : 문화재청)

##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중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계) 불교총지중 유지재단

###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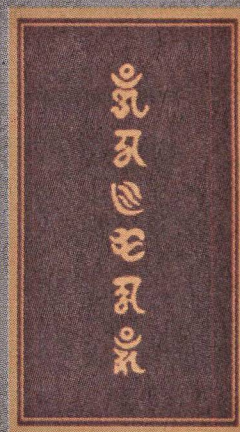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히계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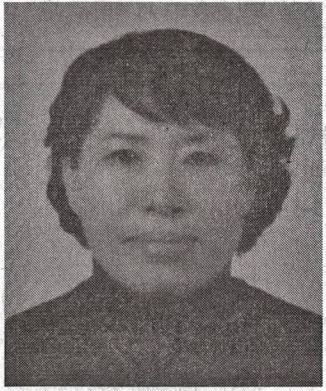
가정다라니





통신원 편지

## 만보사의 큰 서원



▲ 만보사 유복근 통신원

만보사에는 오랜 서원사가 있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전 교도들이 함께 서원하고 원력을 모으는 바로 「만다라 봉안」입니다.

만보사에는 달라이라마 존자의 친필 축원과 서명이 날인된 만다라를 모셔다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공사 예정인 만다라 봉안 불사를 위하여 저희 만보사 서원당은 스승님, 회장님 교도 모두가 한마음으로 간절함을 지심으로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을 만드느라 과정에서도 연잎 하나, 하나 떼어 비비고 할 때에도 염원을 담았습니다.

풀질을 하여 한 잎씩 붙여 연등이 완성되면 그 공덕으로 「만다라 봉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등을 부처님께 공양했습니다. 서원당을 꼭 채운 연등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연등의 밝음 속에, 깨끗하고 신선한 공양물을 준비하여 육법공양을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육법공양이 섬세하고 엄숙히 진행되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지도해주신 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합창단은 부처님께 음성공양을 올리기 위하여 '이 공양 받으소서'를 지정곡으로 선택하여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음성공양이 만보사 서원당에 울리는 순간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다라 봉안 불사」를 원만히 성취하기 위하여 올리는 만보사 교도들의 정성 어린 불공을 부처님의 자비원력으로 환한 미소로 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다라 불사가 웅장함과 장엄함, 영험이 있는 불사가 되기를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한마음으로 서원합니다.

음마니반메흠

## 불자생활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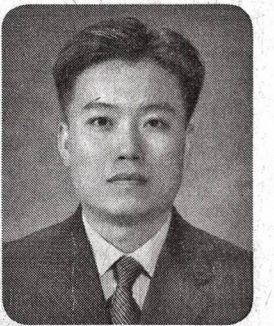
한 필지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이 집행 불능인지요?

김씨는 친구인 박씨로부터 소유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씨는 김씨가 매수한 부분의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아 김씨는 매수부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판결에는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매수부분의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민법' 제404조는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법' 제52조(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도 대위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불자변호사 하동길 변호사의 생활법률이 시작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를 매월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할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 1093판결, 1994. 9. 27. 선고 94다25032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김씨도 박씨를 대위하여 위 토지의 분할신청을 하여 분할등기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기획특별전

## 이슬람의 보물

### 알사바 왕실 컬렉션 개최

개최되는 전시품은 쿠웨이트 왕실이 소장하고 있는 이슬람 미술품 '알 사바 컬렉션(al-Sabah Collection)' 가운데서 엄선한 것이다. 총 367점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국내 최초로 이슬람 미술 전반을 소개하는 전시로, 규모, 전시품의 다양성, 수준면에서 한국에서 보기 드문 전시이다.

'알사바 컬렉션'은 쿠웨이트 왕실의 일원인 후사 공주(Sheikha Hussah Sabah al-Salem al-Sabah) 부부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부터 수집된 이 소장품들은 3만 여 점에 이르며, 1983년부터 국가에 영구대여 되어 쿠웨이트 국립박물관에 속하는 '다르 알아타르 알이슬라미야(DAI;국립박물관의 이슬람 미술관)'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시간적으로는 8세기부터 18세기까지 1,000여 년 간, 공간적으로는 스페인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아우르고 있다.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수많은 민족과 왕조가 전쟁을 벌이고 성쇠를 거듭하였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슬람 문명의 공통 요소를 확립해 나갔다. 이슬람 미술품에는 이슬람 세계 각 민족과 문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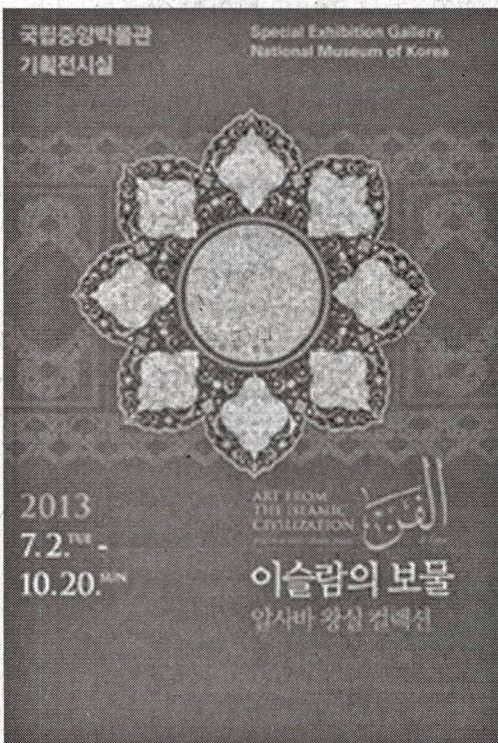
총 9부로 구성된 전시는 이슬람 미술의 흐름을 시간적 순서로 살펴볼 수 있는 전반부와 이슬람 미술의 본질적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이슬람 미술은 금속, 유리, 목재, 석재 등 다양한 재료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제작한 예술가나 장인들 역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슬람 미술은 몇 가지 본질적인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이 세 요소를 '예술로 승화된 문자, 서예' '식물무늬의 장식화, 아라베스크' '무한한 반복의 표현'으로

나누어 배치하였으나 실제로 이슬람 건축을 포함한 미술품에서는 이 세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 표현된 경우가 많다. 또한 세 요소의 발달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여 형상 표현을 제한한 이슬람의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화려한 궁정 문화, 보석 공예'는 전시장 내 별도 공간에 전시하였다. 이 공간에 주로 전시된 무굴 제국의 보석 공예품은 이 지역 보석 세공 장인들의 놀라운 기술 수준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 개최했던 전시에 비해 보석 수량이 늘어났으며, 수준도 더 뛰어나다.

사진 및 자료제공=국립중앙박물관, 쿠웨이트 대사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은 2013년 7월 2일부터 10월 20일까지 기획특별전 「이슬람의 보물-알사바 왕실 컬렉션」을 개최한다. 이번에 소

“특별한 분을 위한 특별한 만남”  
**인우결혼정보사**

매니저 **민 세 정** (이운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차 713호  
Tel.02-569-9792 Cell.010-5002-2636

---

**광진데코 (주)**  
Demolition Environment COstruction  
www.gjdec.com

지정폐기물 · 폐석면 ·  
사업장폐기물 운반 · 처리  
비계구조물 설치 · 해체, 건축시공

(445-842)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 757-3  
TEL. 031-366-9565 FAX. 031-360-8987  
E-MAIL. juni-1211@hanmail.net

● 불교총지중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턴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가족의 마음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상담전화 **02.596.4600**

부동산, 세무,  
형사, 민사, 가사,  
특히 전문, 개인회생,  
파산 특별 상담

※ 총지중 교도 특별 상담

변호사 하동길 종합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1715-3 동구빌딩 201호



다시 **우리시조** 읽는

**보리밥 풋나물을**

지은이: 고산 윤선도



▲ 세죽도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싫도록 노니노라  
그 밖의 다른 일이야 부러울 일 있으랴**

**보리밥 풋나물을 알마초 먹은 후에  
바윗곳 물가의 슬코지 노니노라  
그나쁜 너나쁜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고산 윤선도의 만흥(漫興)이라는 연시조의 두 번째 시입니다. 고산은 자연에서 한적한 삶을 찾고자 했습니다. 비록 보리밥과 산나물 반찬이 전부인 점심을 먹지만, 어느 진수성찬보다도 마음 편안한 식사를 한다.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것이 옳다, 거르다 는 논쟁도 없고, 남을 모함하여 자신의 영달만을 추구하는 세상사와 이별한다.

그저 끼니나 거르지 않고, 바위 끝 물가를 한가히 거닐면서, 물과 함께 마음의 편안을 찾았다. 고산은 오랜 시간 당쟁의 소용돌이를 목격하고, 자신 또한 모함으로 고초를 겪었던지라, 고요한 자연과 벗하여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안식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편집, 정리 = 편집위원회

유 물 로 보 는 **비로자나불**

종 목 : 보물 제131호

명 칭 : 광주 증심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

분 류 : 유물 / 불교조각 / 금속조 / 불상 수량/면적 1구

지정(등록)일 1963.01.21

소재지: 광주 동구 증심사길 177, 증심사 (운림동)

시 대 : 통일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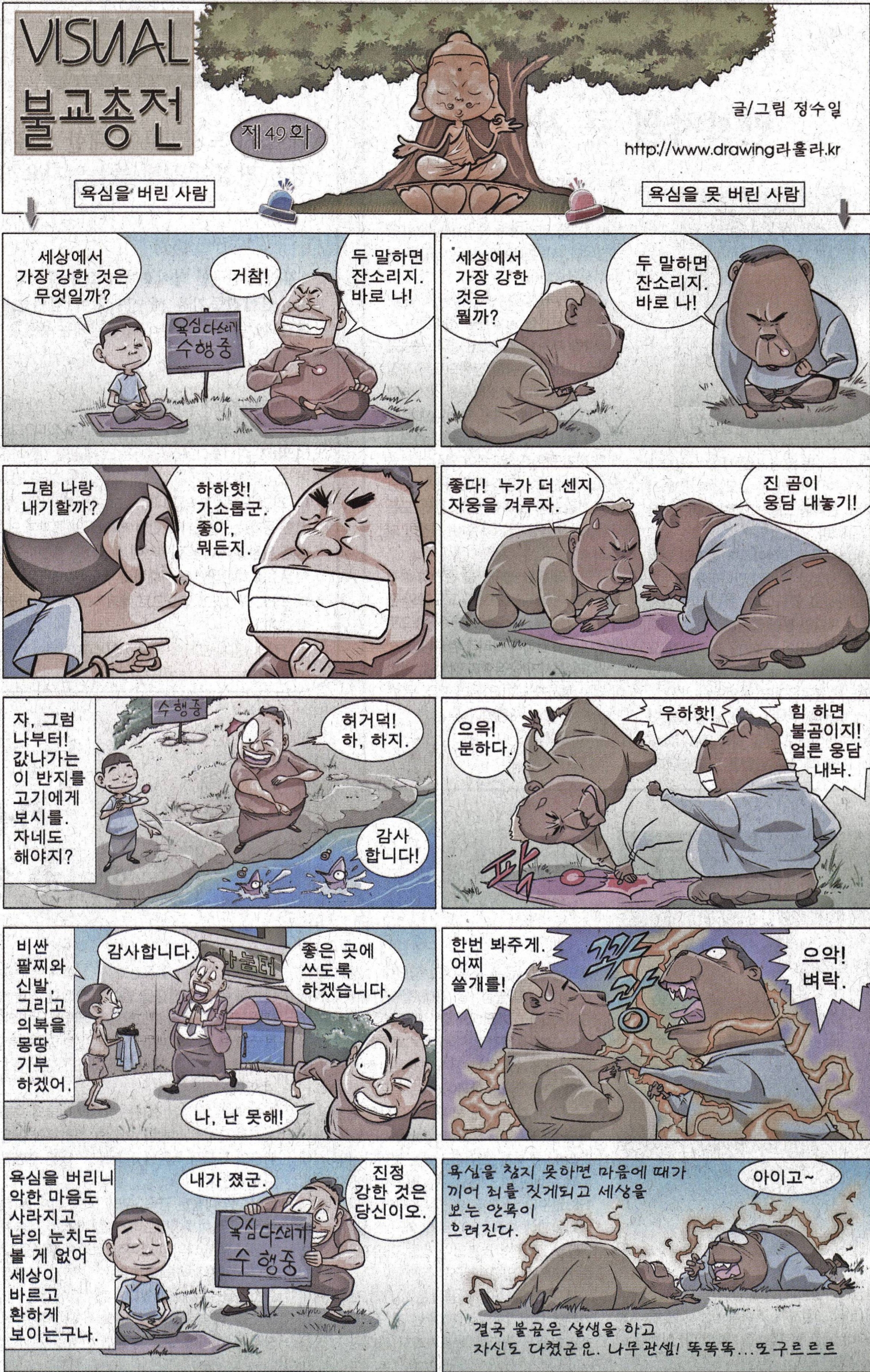


▲ 광주 증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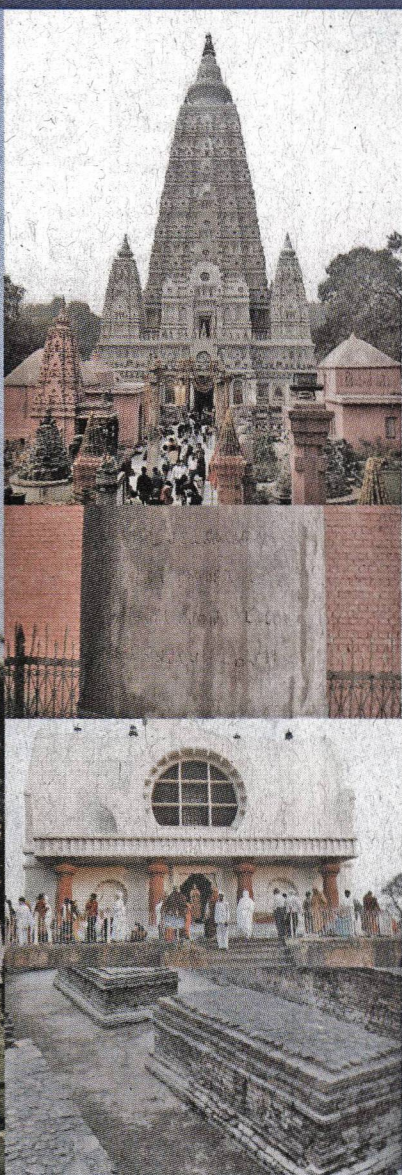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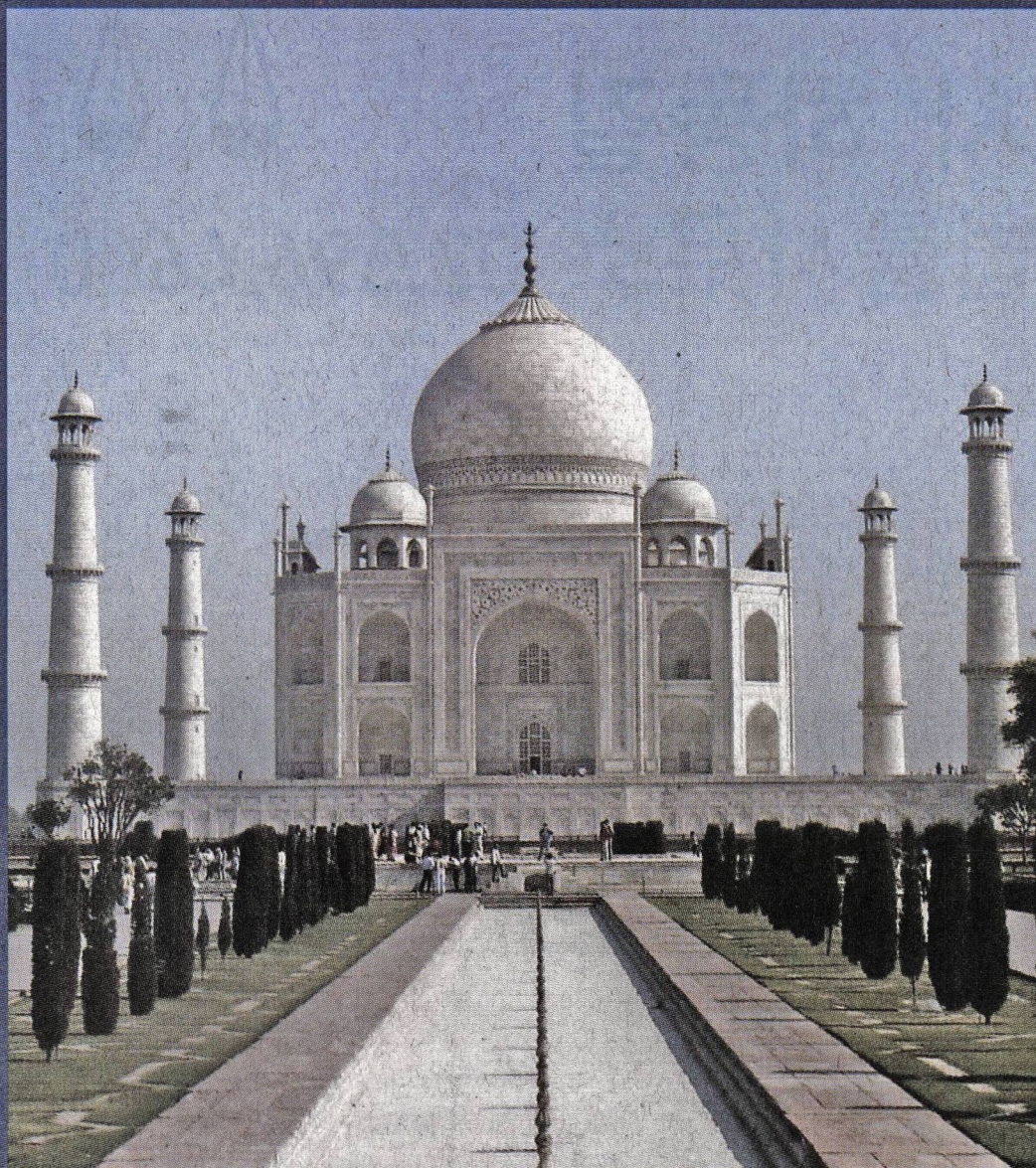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아니지만 통일된 균형미를 보이는 점이 우수하게 평가되며 도표안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63호),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좌상(국보 제117호) 등과 함께 통일신라 후기인 9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전” 제3장 덕행편 467p-8



불교총지종과 함께 떠나는 **인도&네팔**

**8대 성 지 순례**

- 순례기간 : 2013년 11월 20일(수)~ 30일(토) (10박 11일) / **부산출 · 도착**
- 순례지역 : **인도 & 네팔**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Umbini)**

“부처님께서 무상정각(無相正覺)의 깨달음 얻으신 성불(成佛)의 땅” **보드가야(Bodhgaya)**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신 초전법륜지(初轉法輪地) 녹야원(鹿野苑)” **사르나트(Sarnath)**

“세계 최초의 불교사원 왕사성(王舍城) 죽림정사(竹林精舍)” **라즈기르(Rajgir)**

“제2차 경전결집 비사리(毘舍離) 대림정사(大林精舍)” **바이살리(Vaishali)**

“부처님께서 24번의 하안거를 보내신 사위성(舍衛城) 기원정사(祇園精舍)” **스리바스티(Seavasti)**

“부처님께서 도리전에 오시어 설법하신 후 하강하신 삼도보계(三道寶階)” **산카시아(Sankasia)**

“부처님 열반지” **쿠슈나가르(Kushinagar)**

**아그라 타지마할 포함**

- 순례비 : 2,690,000원(변동환율 적용, 추가금액 발생 가능)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모집대상 : 승직자, 교도, 교도 가족
- 신청기간 : 2013년 9월 30일까지
- 신청 및 기타문의 : 불교총지종 정각사 ☎ 051\_552\_7901  
정각사 법상정사 H.P 010\_5521\_3400  
포커스투어 ☎ 051\_463\_4144 H.P 010\_9763\_0700



불교서적  
에세이

# 좋은 어머니란... 완성된 인격을 전제로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



엄마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엄마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조건 희생한다고 좋은 어머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머니일수록 자식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 오히려 이기적이고 왜곡된 모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좋은 어머니란 완성된 인격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자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결혼 전부터 인격을 갖추고 바른 원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다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 훌륭한 스님들의 엄마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책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는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책이었습니다. 도파안사에서 펴낸 이 책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2010)는 석가모니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을 비롯해 조계종 전 종정을 지낸 법전 스님의 어머니,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어머니 등 인도 중국 한국 티베트 등 출가수행자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야부인은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 7일 만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처님의 양육은 이모인 마하빠자빠디부인이 맡았기에 부처님에게는 2명의 엄마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야부인도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고, 마하빠자빠디는 불쌍한 사람을 돌보고 또 나중에 출가를 하는 것만 봐도 물질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비심과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줄 아

는 수승한 정신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요.

· 그리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지도자로 추앙받는 달라이라마의 어머니는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위대한 어머니로 불리면서 관세음보살의 화신 중 하나인 따라 보살로 추앙받는 사람인데 자식들 중 세 명이나 환생자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환생자를 두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달라이라마를 비롯해 세 명의 환생자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은, 환생자들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녀가 훌륭한 정신의 소유자였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 달라이라마를 배출한 집안은 왕족의 대접을 받기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데 그녀는 농사꾼일 때 입던 옷을 여전히 입고 다닐 정도로 검소했고, 또한 겸손하게 생활했으며 달라이라마를 따라 인도로 망명하고 나서는 고아원에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면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친절한 분이셨다. 비록 우리는 굶주렸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거저를 빈손으

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었다”고 했으며, 또한 그녀 주변 사람들은 “달라이라마의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분이였다”며 달라이라마의 타고난 친절과 자비심은 그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그런데 뜻밖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티베트 불교사 가장 훌륭한 수행자로 추앙받고 있는 미라레빠라는 스님의 어머니는 지금까지 만나 본 위대한 어머니들과는 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독기를 갖고 있는 어머니였으며 그녀의 이런 나쁜 성향은 아들로 하여금 사람을 35명이나 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살인자의 엄마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인 미라레빠로 하여금 흑마술을 배우게 하여 자기 원수인 외삼촌 부부와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으며, 뿐만 아니라 마을에 우박까지 퍼부어 농사를 망치게 하도록 사주하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이 엄마는 결국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우란분절의 주인공인 목련존자의 어머니와 유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아들인 미라레빠는 엄마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비로소 엄마가 걸어놓은 세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히말라야 동굴로 들어가 뼈를 깎는 수행을 무려 12년이나 계속 했고 마침내 티베트 불교사에서 가장 위대한 수행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 스님들의 어머니 중에는 위대한 어머니도 있었고 나쁜 업을 만들어준 엄마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두 어머니나 달라이 라마의 어머니와 같은 분은 훌륭한 인격의 씨앗을 만들어줌으로써 그 역할을 하였고, 나쁜 업을 짓게 한 미라레빠의 어머니는 뼈를 깎는 수행의 계기를 만들어주었다는 데서 또한 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든 간에 엄마의 역할은 지대하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자식을 형성하는 반 이상은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스님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현재 자식을 두고 있는 엄마로서 책임감을 통감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자유기고가 김은주

## 종교언론인협의회 평화위원회

### 천주교 왜관 베네딕토 수도원 수행 체험



▲ 44세의 신임 원장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

한국 종교언론인협의회 산하 종교평화위원회가 주최하는 제1회 종교체험 행사가 6월 21일~22일 양일간 천주교 왜관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열렸다. 이번 수행 체험 행사는 종교언론인협의회에 가입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등 종단 별 언론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다. 불교 총지중에서는 총지종보 김종열 기자와 위드다르마 배공주 기자가 참가했다. 이번 행사의 취지는 각 종교의 홍보와 포교를 담당하는 종교언론인들

이 서로의 종교를 깊이 체험함으로써 종교 간의 이해를 높이고 공동의 목표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다.

· 광화문에서 집결한 각 종교별 언론인들은 두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목적지인 경북 칠곡군 왜관읍으로 향했다. 베네딕토 수도원에 도착하자 체험 일정을 안내해 줄 피정의 집 원장 아브라함 신부가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주위를 둘러볼 잠시의 쉼도 없이 오후 기도예에 참석했다. 성당 안에는 몇몇 신자들과 피정(천주교 신자들의 기도 수행) 중인 신자들이 함께 했다. 수도원장이 선두로 수도원 임교의 순으로 두 줄로 차례로 입장한 수사들은 모든 기도를 노래로 진행했다. 이 점이 다른 수도원과는 이곳만의 전통이다. 기도가 끝난 후 피정의 집에 여장을 풀 일행들은 아브라함 신부의 안내로 수도원 견학을 했다.

· 베네딕토 수도원은 1909년 현재의 서울 해화동 동성고등학교 자리에 처음 수도원을 세웠다. 교육 사업을 시작한 독일 오틀리엔 성 베네딕토회가 1920년 원산교구(元山敎區)를 관할하게 되자 함경도 덕원으로 수도원을 옮겨 세운다. 8·15광복 후 북한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면서 1949년 5월 수사(修士)와 신부 등이 체포되고 수도원과 모든 재산은 몰수됨으로써 자연히 폐쇄되었

다. 남은 베네딕토회 수사들은 월남하여 경북 왜관(倭館)에 자리를 잡고 피난수도회 시대를 개척하였다.

· 현재 왜관의 성당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구 왜관 성당에서 피난살이를 시작했다. 구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지방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수사들의 생활은 철저한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 원장 수사를 중심으로 공동 생산과 분배를 원칙으로 자급자족으로 운영된다.

· 마침 하루 전인 6월 20일 이곳 수도원에 새로운 원장 착좌식(취임식)이 열렸다. 새로 취임한 원장 수사는 44살의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원장을 칭하는 말)다.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베네딕토 수도원 원장은 주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대부분의 주교가 60대를 전후해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젊어도 너무 젊은 나이다. 이유는 하나였다. 변화하는 세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다. 수행의 전통은 1200년간 유지되어 온 그대로 지키지만, 수도원 운영이나 포교를 위한 방안은 언제나 그 시대를 따라야 한다는 깨어있는 생각으로 젊은 지도자를 뽑은 것이다.

· 수도원에는 수사들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노동을 하는 작업

실이, 농장이 있다. 이곳에서 만든 소시지는 독일인 수사들로부터 직접 전수 받아 전통적인 작업으로 만들어 진다. 그 중 수도원이 가장 공 들이는 사업 중의 하나가 출판 사업이다. 수도원 설립 초기부터 인쇄기를 들여와 성경이나 신앙관련 서적을 출판 보급했다. 분도출판사라는 상호의 이 회사는 항상 적자다. 안 내를 맡은 아브라함 신부는 조금의 이익이 발생하지도 않는 출판 사업을 왜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간단하게 대답했다. 출판 사업은 수도원 설립과 동시에 제정한 주요 목적 사업이란단. 아무리 이익이 안 나더라도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다른 사업 목공예, 스테인드글라스, 식품 등에서 얻는 수익으로 목적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불교의 간경 사업과 마찬가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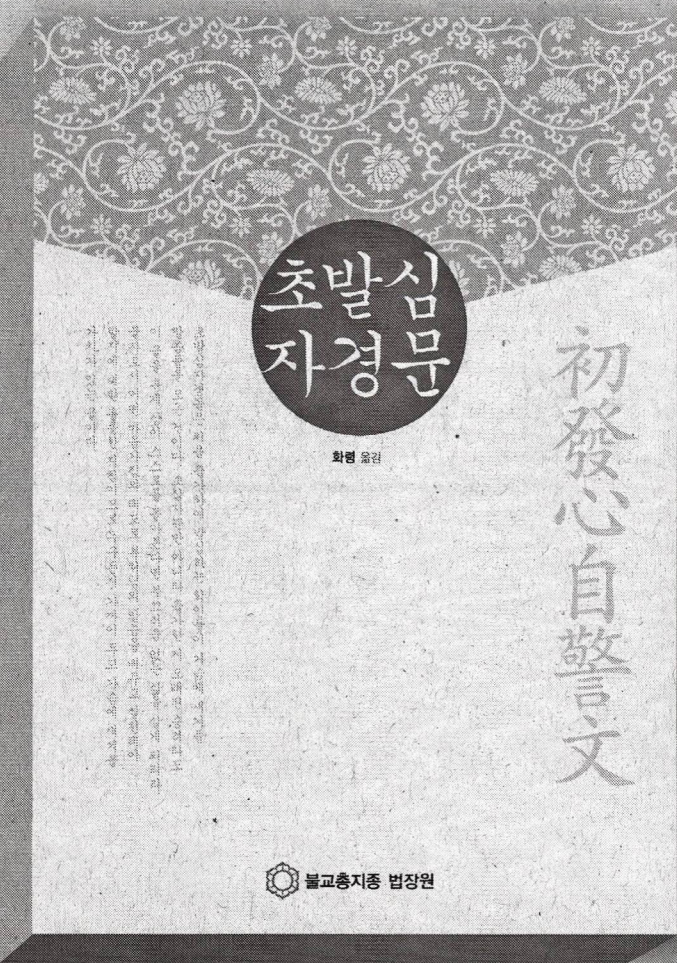
· 수사들은 기도와 노동으로 짜여진 시간 속에서 수도생활을 평생토록 한다. 이 수도원은 하루 5번의 기도와 두 번의 미사를 드린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노동에 임한다. 불교의 주경야전의 수행전통과 유사해 보인다.

· 이번 체험은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수행자들의 생활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종단의 수행법과도 어느 정도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모두가 그렇지만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를 찾는 수행은 종교의 이름과 방식만이 다를 뿐이지 서로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그리고 가장 보수적이라 생각한 가톨릭 수도원이 가장 발 빠르게 세상과 소통한다는 점은 불교도의 한사람으로 깊이 배울 점이라 생각된다.

왜관= 천주교 베네딕토 수도원 배공주 기자

初發心自警文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 초발심자경문

· 제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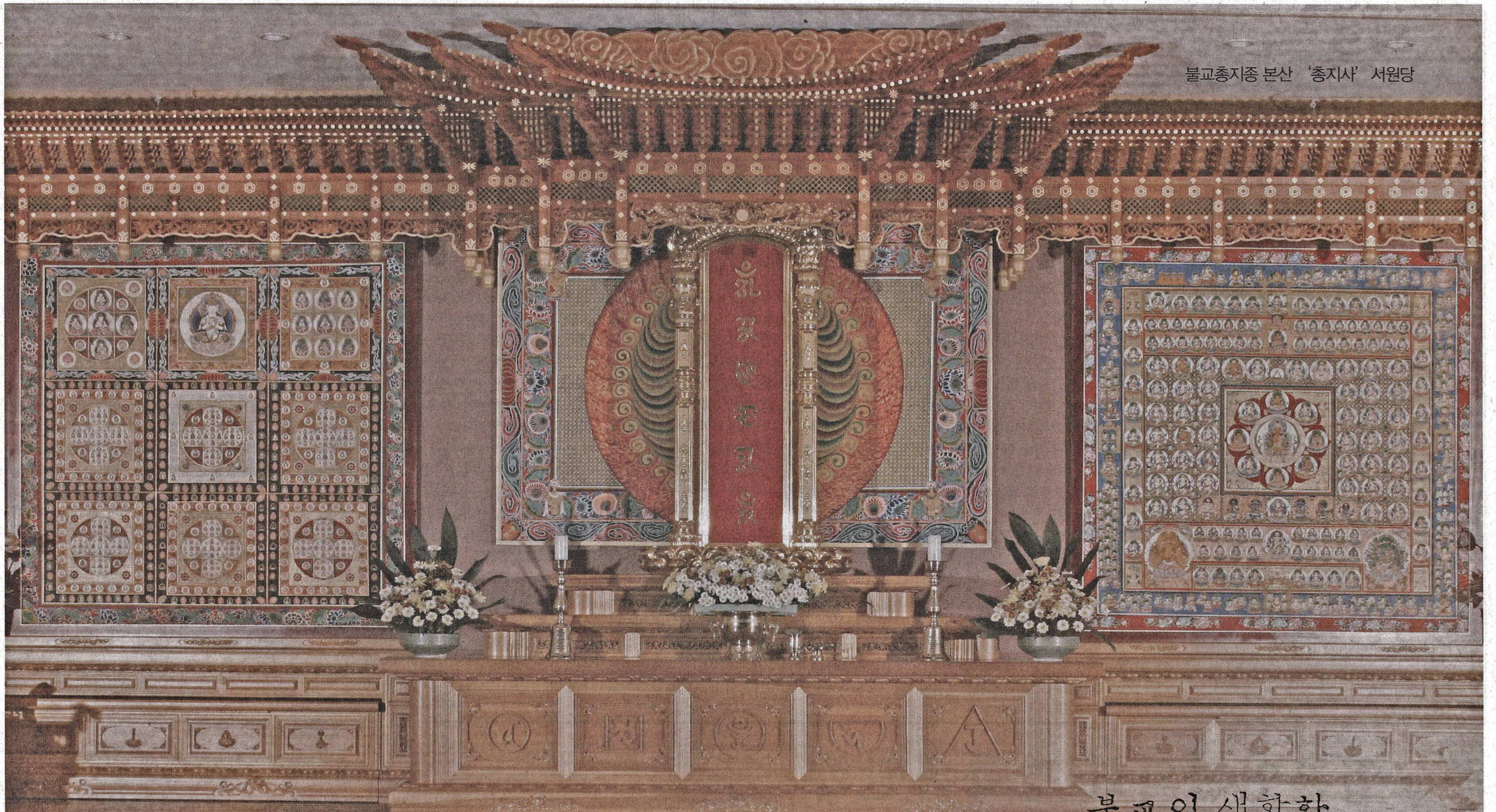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임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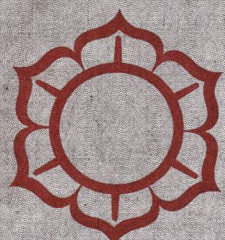
화령 번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불교총지중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중.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심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중

## 월초불공

07월01일 ~ 07월 07일 오전 10시

##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

07월 15일 (월)

## 호국안민기원대법회

07월 16일 (화)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www.chongji.or.kr